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3



VOL. 213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	매일
	KE626	0750	1655	월, 목, 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	수, 토, 일

- * KE625/6편은 4월 2일부터 운항합니다.
-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amick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자녀의 평생음감을 좌우하는 첫 피아노.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피아노 선택은 정확한 음감으로 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음감으로 많은 전문가에게
사랑받는 정통 독일형 SAMICK이요,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 the First Piano —

SAMICK

SAVE THE MONEY!

USE LED! Now LG Lighting!



High efficiency and energy cost savings

Replace 36W conventional fluorescent lamp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of 51%.



Wide coverage angle of the light distribution

To minimize the heat sink area coverage angle of 180 degrees wide. Because of this uniform distribution is similar to conventional fluorescent lamp available.



A cost saving lighting electricity costs

A long life of 40,000 hours can be long-lasting and economical maintenance costs are low.



Low carbon emissions of green lighting

There is no mercury in the human body, reducing annual CO₂ emissions of green lighting.

LG LED fluorescent tube for long life and superior economics to provide a uniform light with high efficiency products.



LG LED Lighting 공인판매법인 PT.DAEHWA Indonesia

Contact person 김세형(KIM SD HYOUNG) Mobile Phone 0811) 747 11 E-mail shkims305@daum.net / kimsk@ptdaehwa.com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 례..... 6

이모저모 한인사회..... 8

끌루드 화산분출

제4회 월드 코리아 대상 시상식

항공기 T-50i 인도네시아 실전배치

3.1절 기념식

자총련 3.1절 행사

자카르타 상공회의소 업무협약체결

코린도장학재단

ROTC 임시총회

사이버보안 R&D센터

루트피 무역장관 면담

한국현대서예초대전

KOICA 주택현정식



Gunung Kelud (2014/2/14)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끌루드화산폭발 소식을 듣고

아이슬랜드의 화산폭발이

기후상향을 악화시키고 식량위기를 불러와

유럽의 국가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혼란을 겪었고

그 결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귀결되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기후가 인류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김없이 춘, 하, 추, 동이라는 회기 속에

익숙한 반복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봄,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동남아 투자여건 비교 설명회	CNN선정 한국의 명소50
2014년 인도네시아 총선거개황	<편집부>..... 46
우송대 한인회방문	
주아세안 대표부	행복에세이 <서미숙>.....47
JIS 소식	
JIKS 소식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땅그랑 반튼 한인회 소식	(피낭) <백진협>.....50
2월 경제 브리핑	
내 마음의 뜰 <시:김길녀/그림:이태복>	인도네시아, 과거와 미래가 함께 오는 곳
보로부두르 이야기	<임이랑>.....54
풍경과 사람<엄종한>.....39	부동산법<이승민>.....56
기업 탐방(SAMICK)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편집부>.....40	<허영순>.....60
Jalan-Jalan Jakarta/독립투쟁박물관	화 도 소66
<사공경>.....43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운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화산폭발 가능성 대비 신변안전 유의

1. 최근 주재국 정부는 Sinabung(Karo, 북부 수마트라)과 Kelud(Kediri, 동부자바) 화산에 대해서는 화산 최고 경보단계인 4단계(Danger)를, Karangetang(Siau, 북부 술라웨시), Rokatenda(Palu' e, 북부 플로레스), Lokon(Tomohon City, 북부 술라웨시) 등 3개 화산에 대해서는 3단계 경보(High Alert)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화산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화산 소재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동포들은 TV, 라디오 등 방송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은 해당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국적상실 관련 국립묘지법령의 개정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2014. 1. 17자로 국가유공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상실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립묘지령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률 제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법률 제5조 제6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안장기준으로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 사망 당시 국적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등을 규정함(시행령 제3조 제5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신청서 서식 및 사망진단서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 3조 제3항)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필요한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의 방식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윤명석, 044-202-5554) 및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화산분출, 4개 공항폐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동(東)자바주 케디리군(郡)에 있는 클루드 화산(1천731m)에서 분출이 시작돼 주변 4개 공항이 임시 폐쇄되고 주민 20여만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부 사망자 발생 보도가 나오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화산경보가 내려진 화산 주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국가재난방지청(BNPB) 수도포 푸르워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전날 밤 클루드 화산에 최고수준인 4단계 경보가 발령된 뒤 10시 50분께 첫 분출이 시작됐으며 분화구 주변 10km 내 36개 마을의 주민 20여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분화구에서 15km 떨어진 지역에도 화산재와 자갈 크기의 화산 분출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고 화산 정상에는 계속 불꽃이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보고되지 않는다고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부 언론매체들은 화산분출 당시 주변의 주택들이 무너져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또 2차례에 걸쳐 분출된 화산물질이 100km 이상 떨어진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와 200km 이상 떨어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까지 날아와 화산재가 수cm씩 쌓이는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밤방 에르반 교통부 대변인은 화산재 등으로 가지 거리가 짧아져 족자카르타, 솔로, 수라바야 등 3개 국제공항과 1개 지역 공항을 임시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있는 클루드 화산이 폭발해 인도네시아 솔로의 한 공항이 화산재로 덮여 있다.

이 때문에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는 이들 지역으로 가려던 승객 1만7천여명의 발이 묶이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내놓은 동포안내문에서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TV, 라디오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변 안전에 특히 주의하고 해당 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와 수마트라 등 주요 섬들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지진대 위에 놓여 있어 화산과 지진활동이 활발하며 현재 활동 중인 활화산이 13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신기엽 회장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동포에 무리한세무 조사”

배우자 국내체류도 세금납부 기준 포함.
국세청 “한국방문 횟수, 체류일수 종합판단” 원론적 답변만

국세청이 해외 한인기업인에게 무리한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신기엽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이 주장했다. 그는 2월12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3년 월드코리아대상 시상식’에서 “국세청이 수 십 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포 기업인을 ‘한국 거주자’라 하여 세무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동포가 한국에서도 100일 가량 체류하고 있으며, 부인도 한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세금 납부를 청구하고 있다. 현재 세법상 거주지 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닌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한다. 해외동포의 한국 방문 횟수 및 체류일수, 대한민국에 재산 보유 현황, 대한민국 투자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 회장은 특히 국세청이 ‘가족 특히 부인이 한국에 살면 납세 당사자(예컨대 남편)를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자녀들의 학교생활, 미혼 자녀들의 혼처 찾기, 연로하신 부모 모시기 및 신병 치료로 부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것 까지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국세청 및 정부가 해외 동포기업인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현 국세청 사무관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족의 한국 거주만으로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가족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이 2012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다. 2013년도는 1,376곳, 2012년도에는 1,050곳이었다. 또한 2011년 875곳, 2010년 874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청구한 경우는 2012년도 4,343건이 최고를 기록했다.



'제4회 월드코리안대상' 시상식 열려 신기염한인회장 리더십부문 수상

지난 2월 12일 오후 5시 국회 본관에서 2013 월드코리안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월드코리안대상은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4회를 맞이했다. 수상자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월드코리안신문에서 위촉한 월드코리안 대상 선정 위원회가 12월 27일 전 세계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선정했다.

시상식에 앞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사 대표가 환영사 및 내빈 소개를 통해 각 수상자들의 이름과 면면을 내빈들에게 소개하였다.

이 대표는 “바쁘신 가운데 국내외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인사말을 건넨 뒤 “세계 한인사회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여러 상이 준비되어 있어 수상자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며 환영사를 갈음했다.

이어서 축사가 진행됐다. 이기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민주당 전 대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장, 김성곤 민주당 의원,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마지막으로 이정관 외교부 동포영사대사 순서로 수상자들에게 짧은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여러분들의 업적



에 비해 너무나 조출한 자리를 마련했다” 며 “최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5개 부문에서 수상되었고 그 외에 특별상도 준비되어 있었다. 국가브랜드부문-린다한 워싱턴한인연합회장, 문화소통부문-이숙순 북경한국인회장, 리더십부문-신기염 인도네시아한인회장, 커뮤니티부문-김성학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부회장, 나눔봉사부문-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인물들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가족들과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박수와 꽃다발에 화답으로 각각 소감을 밝혔고 예상 밖의 큰 환대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상식은 감사패 및 위촉패 전달식 등으로 진행되었고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은 훈훈한 축하연 분위기 속에 끝났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i 인도네시아 실전 배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i가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실전배치를 마쳤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할림 비행장에서 T-50i 전력화 기념식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관행사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도요노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통합군사령관 등 정부와 군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하성용 KAI 사장,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참석해 양국 우호관계 증진과 방산협력 활성화를 약속했다.

하성용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T-50i를 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AI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와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 16대, 4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T-50i 2대를 직접 비행(Ferry Flight) 방식으로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친 직접 비행으로 수출물량을 모두 인도했다.

KAI는 T-50i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형차 1만 6천대 수출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 1억 7천만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7천700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 등이 발생한 것으로 KAI는 분석했다.

KAI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지난해 12월 국내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11억 3천만 달러의 T-50IQ 이라크 수출, 기본 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터키·페루 등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산 항공기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자카르타상공회의소 업무협약체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 및 기업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4일까지 기업인들로 구성된 무역상담사절단을 파견했다.

20일(목) 오전 10시 MENARA KADIN에서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코참 송창근 회장, 자카르타 상공회의소 에디쿤타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우선친선관계 및 교류활성화를 더욱 강화 시켜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기업성장을 돕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 인도네시아 3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샹그릴라 호텔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상담사절단에는 조성제 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 14개사가 참여했으며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협력업무 실무 담당자를 포함해 총 19명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자카르타 상공회의소 에디쿤타디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항구도시, 산업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관광, 조선,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큰 교역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회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이 실질적인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업무제휴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업무협력이 작은 시작이지만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무역상담사절단을 계기로 부산상의의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비즈니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동안 P.T KMK(대표 송창근)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성공 사례담을 듣고 공장을 시찰했다.

제95주년 3·1절 기념식



국가의 주권회복을 위한 3·1 운동 9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열렸다.

1백여명의 각계 한인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독도관련 동영상 관람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임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한 우리의 신념을 밝힌 3.1 독립선언문을 신기엽한인회장의 낭독이 있었다. 다음으로 김영선대사가 박근혜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하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이 꿈꾸셨던 그 위대한 이상과 가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원다섯 분 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하고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된다.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한다.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1절 노래 제창,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한 후,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되었다. 삼일절의 숭고하고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이후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는데, 민주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박근혜 표창수상자는 이철훈자문위원과 최병우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수상자는 당중례한국문화원 부원장이다.



"대한독립 만세" "삼일절 부활 만세"

3·1절 기념식에 이어, 한인문화회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회장현상범) 주최로 삼일절 2부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재인도네시아 각 한인단체와 학생들을 비롯한 한인동포 및 일부 인도네시아인들(글로벌 리더)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한국국제학교 이송학생과 UI대 법학과 장진수학생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UPH 대학생들의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손뼉 치며 동참한 한인동포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가슴 뭉클한 공감의 장을 만들어 냈다.

이날 또한, 한인 단체장들과 행사에 참석한 한인동포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피 흘렸던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손바닥에 문힌 붉은 잉크를 통해 상기하면서, 대형 천에 손도장을 찍어가며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이 값진 손도장 태극기를 대사관을 비롯하여 한인회 및 기타 한인단체에 기증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이 지향하는 나라사랑과 UN NGO단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교류를 통한 한국의 위상제고 및 자유 수호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는 이 행사에서 "글로벌리더" (한인 청년 20명, 인니 청년 32명)의 공식 발대식도 아울러 가졌다. 이날 "글로벌리더"의 발대식에서 각 한인 단체장들이 일일이 대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면서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와 독도 관련 망언, 약탈한 문화재 반환, 일본의 잔악한 행위를 담은 결의문을 이태복부회장의 선창으로 참석하신 동포들과 더불어 규탄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현상범 회장은 이번 삼일절 기념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한인동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 주고, 현지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양국의 문화교류 등 국제적 교류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긍심과 애국심을 배양시키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코린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연세대학교 1년간 연세대 유학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2월 11일 오후 1시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학과 강의실에서 한국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Natasha 양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대학교 Junaidi 국제처장, Zaini 한국학과 과장,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정무웅재단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Natasha 학생은 답사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에서 많은 것

을 배우고 싶다고 싶다고 하였다. Junaidi 국제처장은 매년 유학생에 대한 후원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코린도 장학재단에 감사를 표했으며 더 많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유학가게 된 Natasha 학생은 코린도장학재단으로 부터 왕복항공료와 수학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1977년에 설립된 코린도장학재단은 매년 1 - 2 명의 장학생을 한국에 보내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및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은 모두 30 여명에 이르고 있다.

ROTC, "제7회 골프대회 및 임시총회" 후기



2월 15일 (토) ROTC 인도네시아(회장 18기 김수용)는 PONDOK CABE 골프장에서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여러 동문이 참가하여 골프대회를 가졌다.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없는 맑은 날씨,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와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여유있게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기공지원 대로 임시총회 모임이었으며, '골프대회 시상', '2013년 감사보고', '회칙 개정'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특별히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모임 대항으로 골프대회를 추진하였는데, 4개 지역으로 나눠 각축을 벌인 가운데 땅

어랑 지역이 우승을 하였다. 우승컵에 따라준 술을 땅어랑 지역회원이 조금씩 나눠마시며 기쁨을 만끽하였다.

2013년 감사보고는 일반 장부 및 특별기금 장부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와 정책에 대한 감사 보고하였고, 이의없이 동문들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2013년 중앙회에서 우승 지회로 선정되어 수령한 기장을 지회 ROTC기에 달았으며, 3기 조용준 고문이 패를 수여하며 격려사로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번 모임이 일반 토요일인 관계로 업무 등으로 많은 동문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웠으나, ROTC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느끼고 화합하는 자리였다.

<사무국>

- 사무국장 26기 김광석 (0811-816-459) -ROTC사무실
- 사무 1 차장 30기 김기주 (0812-120-7497)
- 사무 2 차장 30기 목의수 (0811-94-7189)
- 부총무 35기 구선본 (0811-989-2471)
- 38기 김성주 (0811-111-5061)

KOICA, 'ITB-KOREA 사이버보안 R&D센터' 준공 및 개원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2월 27일, 인도네시아 반둥에 위치한 '반둥공과대학(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 Jatiningor 신 캠퍼스에서 "인니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준공 및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우리 측, 주인니한국대사관 김영선 대사, 박상민 공사, KOICA 최성호 WFK(World Friends Korea) 본부장,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이 참석하였으며, 인니 측, Ir. Banmang Heru Tjahjono 정보통신부장관, Prof. Akhmaloka 반둥공과대 총장, Suwarno Harjo 전기전자공학부 학장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양국 관계자,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준공 및 개원식은 KOICA가 2011년부터 4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KOICA는 동 사업을 위해 550만 달러를 투입하여, 인도네시아의 사이버보안기술 관련 인재 양성과 한국의 선진 사이버보안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사이버보안 산업육성을 목표로 △Cyber Security R&D Center 건축 및 마스터플랜 수립, △사이버보안 정규석사과정 및 사이버보안 전문가 과정 개설, △교육 및 연구 기자재 지원, △센터 운영 총괄 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 파견, △한국 초청 연수 등 5개 주요 부문에 대해 인니 교육부(MOEC), 반둥공과대학교와 논의를 지속하고, 석사과정 운영 및 센터 운영 방안, 센터 사후 모델 등에 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해왔다.

KOICA는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의 중요성과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정부 및 학교 관계자, 관련산업 기업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25일 '한-인니 사이버보안 세미나(Korea-Indonesia CYSE 2013)'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교수와 공무원, 대학원생 대상의 초청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내 적용 가능한 모델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금번, 인도네시아 이공계분야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반둥공과대학의 Jatiningor 신 캠퍼스에 새로 준공된 "ITB-Korea Cyber Security R&D Center"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사이버보안 전문대학원 및 연구센터로서,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다목적강당은 물론, 사이버 보안 전문 개발실과 연구실 및 강의실, 세미나실 등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자재가 구비된 사이버보안 관련 전용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동 센터를 활용한 '정보보호전공' 정규 보안 석사과정과, 정부 관계자, 금융기관 관계자, 대학 및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하는 '정보보호 Executive Master Course(네트워크 보안, 침해대응, 보안정책분야)전공'의 고위급 보안전문가과정이 각각 개설되어 현재 약 120여명의 학생이 수학 중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속적이고 활발한 정보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번 행사에서 김영선 대사는 축사를 통해 "ITB-한국 사이버보안연구센터가 인니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준공식 및 개원식이 끝난 후, 다목적 강당에서는 ITB교수, 인니 선관위(KPU), 우리선관위, 기술청(BPPT)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사이버 보안과 인도네시아 선거(Cyber Security & Indonesian Election)'를 주제로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토크쇼에서는 인니 선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와 이를 위해, 현재의 Manual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자선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Akhmaloka 총장과 김영선대사

김영선대사, 루트피 무역장관과 면담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25일 무하맛 루트피 무역장관과 면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기 타결 및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루트피 장관은 지난 14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기따 위르야완 무역장관 후임으로 무역장관에 임명됐다. 앞서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조정청(BKPM) 청장을 역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루트피 장관을 무역장관에 임명하면서 국내 물가 안정, 신흥시장 개척 등을 포함한 수출 증대, 외국과의 경제 협력 등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회에서 알립니다>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가제) **인도네시아 한인진출 70년사**” 발간과 관련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재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의 협조 하에, 현재 ‘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직능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열의를 가지고 계신 재인도네시아 동포 중, 이 역사적인 과업에 동참하실 희망자들을 기다립니다.

-아 래-

분야	내 용	소요인원
집필진	연대별, 단체별, 업종별, 사회분야별	4~5명
편집진	일반편집, 디자인	10여명
자문단	역대 한인회사무국장, 원로 동포	4~5명
감수	감수, 교정 전문가	4~5명

☎연락처

- ▶ 한인회 사무국장 김재민 0818 870242
- ▶ 한인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한국현대서예초대전개막식

26일 오전 11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영선 대사, 한인회 신기엽 회장,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이사장(전주대 교수)을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서울지회장 김기동 작가(서울체대 겸임교수), 인도네시아 거주 인재 손인식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현대서예초대전 개막식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 인도네시아인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에게 한국현대서예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2월 26일에서 3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초대전에는 현대한국서단의 원로와 중견작가가 고루 참가한다. 도정 권상호 작가를 비롯해 총 36명의 한국현대서예작가가 참여하고 총 36점의 작품이 한국으로부터 초청되었다. 대학의 서예학과를 이끄는 교수들을 포함, 단체와 유파를 초월하고 전국을 망라하여 함께 어우러진 현대한국서단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고루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한국 서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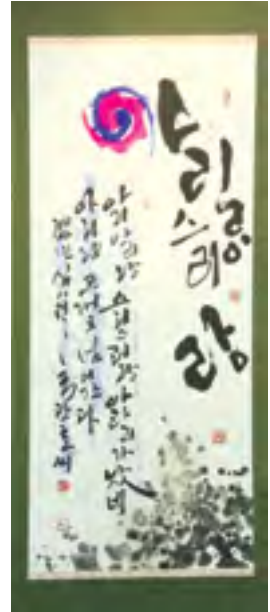
김영선 대사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식견을 높이기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인회 신기엽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작품마다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 같다” 며 “눈으로 즐기고 전시 기간 내내 한인사회에 행복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서예는 문자나 문장이 필목을 통해 혼이 담긴 것이다. 역사를 통해 다져진 법(法)이라 칭하는 보편성에 작가가 깨달은 혼을 불어넣어 역사와 개인의 위(位)를 세운 것이 곧 서예작품이다. 그러므로 글씨가 예술일 수 있음은 전적으로 혼의 유무에 달려있다. 작품의 고저 또한 혼의 경중에 달려 있다. 문장의 의미를 미처 다 알지 못해도 드러나는 형체만으로도 힘과 미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다. 혼이 있는 한 서예는 옛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이다. 예술성에 대한 연구가 거듭된 현대에 와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 마침내 나를 알려고 할진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매우 현실적인 삶의 질문 앞에 당당히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으니, 아주 오랜 과거에도 바로 오늘에도 서예는 사람의 내면과 함께 하는 모던일 뿐이다.

(인재 손인식)



KOICA, 주택현정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해비타트인도네시아와 함께 지난 20일 서부자바주 까라왕 지역 뜰룩방오 마을에서 ‘인도네시아 홍수피해 재난복구 사업 주택 현정식’을 개최했다.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이 참석했고 토미 빠쯏낙 해비타트 인도네시아 총괄책임자, 로마나 스

띠안샤 까라왕 지역대표, 수하다 뜰룩방오 마을대표, 샤리뿌딘 홈파트너 대표 및 마을주민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홍수피해 조기 복구사업’의 일환인 주택 및 학교 현정식이다. 이 사업을 위해 코이카는 해비타트인도네시아와 함께 9개월 동안 원화 1억2천만원 가량을 투입했다. 재해 당시의 폭우로 해당 지역의 인근을 흐르던 짜파룸 강이 범람하여 28세대가 완전히 파



괴되고, 90세대 이상의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며 165세대가 손상되면서 약 21,948가구, 78,776명이 피해를 입었다. 코이카와 해비타트인도네시아는, 마을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파트너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30가구 재건, 50가구 수리, 학교 교실 개축을 완료하였으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재해대처 역량 강화 및 재난 이전 생활로의 복귀를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 재난위험경감 프로그램(CBDRM교육)’을 실시했다.

화상사고를 당한 현지학생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

KOICA 봉사단원



KOICA 해외봉사단 정익재 단원(66세/자동차정비)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부자바 스마랑에 위치한 기술고등학교에서 자동차기능 및 정비를 가르쳐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5월 경 정 단원의 학생인 Arisman 군이 집에서 고압선에 감전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 단원은 이 사실을 알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학생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한편,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정 단원의 노력에 호응하여 평 많은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의 지원 결정으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의 후원 및 현지 의사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한국행 원정 치료가 결정되었다. 먼저 학생은 현지 Ken Saras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뒤 지난 해 11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약 2개월 동안 2차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총 4,400여 만원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의수 및 의족 제작비는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의 모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일미래재단, 해피빈재단의 온라인 모금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학생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치료를 통해 의족을 사용하여 혼자 일어서고, 오른손 역시 의수 착용으로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체력도 호전되어 지난 2월 5일 인도네시아 스마랑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투자여건 비교 설명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2.28(금),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 (GKBI 빌딩 12층)에서 한국대사관 김영신 대사, 한인회 신기엽 회장, 아시아 지역 본부장, 4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코트라관장 등 70여개의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주요국 투자여건 비교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은 동남아 4개국 무역관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2015년 아세안 경제 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에 대비한 동남아 주요국별 시장 상황 점검, 투자여건 비교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자카르타 송유황 코트라관장은 “2013년 미국의 테이퍼링 시사 후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기 충격 발생하였으나, 실제 테이퍼링시에는 주요국별 경제 동요가 미미 하였다”며 “동남아 국가의 경우 핫머니 이동, 투자 감소 등 외부 위협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경제운영능력, 정치적 안정 등 내부역량 확충이 향후 위기대응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김상목 코트라관장은 풍부한 천연자원, 도로 항공 등 발달된 사회 간접 자본, 정치 사회적 안정, 영어소통가능 등의 장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협소한 내수 시장, 노동력 부족, 말레이계 우대 정책 등을 짚어줬다.

미얀마 양곤 안재용코트라관장은 “풍부한 노동력, 광물자원의 세계적 보고, 6천만명 규모의 내수시장이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전기, 통신도로 등의 기초 인프라 부족은 위험요인이자 기회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호치민 허병희코트라관장은 “경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생산구조, 법률과 제도 미비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지만 13년 말 기준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총 3,546건, 290억 달러로 투자건수로는 1위에 해당하며 수교 이래 투자건수 57배, 투자금액 37배가 증가하였으며 미국, 중국 홍콩 다음으로 4위,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 투자국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캄보디아 프놈펜 전미호코트라관장은 “캄보디아 내 대외수지는 경상수지의 적자 폭 확대에도 안정세를 유지하며, 실효환율도 캄보디아의 경제 펀더멘털과 안정적인 대외수지를 반영해 큰 등락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편집위원 칼럼>

2014년 총선 개황

[개요]



1) 인도네시아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선거(Pemilihan Legislatif/Pileg)와 대통령선거(Pemilihan Presiden/Pilpres)를 묶어 총선(Pemilihan Umum/Pemilu)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2014년 총선까지는 국선을 먼저 치루고 이 국선결과를 바탕으로 총 유효득표의 3.5%(2009년 국선은 2.5%) 이상을 취득한 정당만이 의석수를 배정받고, 이들 정당들이 20% 이상의 의석수, 또는 25% 이상의 득표수로서 단독, 또는 정당간 연합으로 대선후보(러닝메이트 포함)를 낼 수 있다. 중앙선거관위(KPU)는 '2014년 4월 9일'을 국회의원 선거일로, '2014년 7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공고하였다.

2) 그러나 UI대학 에펜디 고잘리 교수가 제소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부터는 국선,대선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2019년 대선부터는 '20% 의석수, 또는 25% 득표수' 조항이 소멸된다.

3) 중앙선거관위는 2013년 1월 7일 총선참가를 신청한 34개 정당을 규정에 따라 검증한 결과, 10개 정당을 1차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정당들이 행정소원을 제출하여 PBB, PKPI 2개 정당이 추가되어, 2014년 국선에는 총 12개 정당이 각축을 벌이게 된다.

4) 대선의 당선 요건은, 득표수 50% 이상과 전체 주(33개 주)의 50% 이상 주에서 20% 이상씩 득표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1라운드 다수득표 2개조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5) 지역대의원(Dewan Perwakilan Daerah/DPD)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각 주 별로 4명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33개 주에서 공히 4명씩 배출하여 132명이 선출된다.

6) 국회의원(DPR,560명), 지역대의원(DPD,132명)을 합하여 국가 최고의결기구인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구성되며, 2009년 국민협의회 의원수는 총 692명이었다.

7) 각 당은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3월 16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두고 힌두교 공휴일인 3월 30일 하루만 빼고, 일곱차례의 선거캠페인을 열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는,

- (1) 09시부터 16시까지의 옥외 대중유세
- (2) 사회자에 의해 실내에서 진행되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 공개토론
- (3)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등이 있다.

2.국선 참여정당의 명암

1) 2014년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을 2009년 총선 득표율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으며, ⑩번부터 ⑫번까지는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정당들이다.

- ①Partai Demokrasi(민주당) ②Partai Golkar

(직능당) ③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PDIP (투쟁민주당) ④Partai Keadilan Sejahtera/PKS (복지정의당) ⑤Partai Amanat Nasional/PAN(국가수권당) ⑥Partai Kebangkitan Bangsa/PKB (민족개화당) ⑦Partai Persatuan Pembangunan/PPP (개발통합당) ⑧Partai Gerakan Indonesia Raya/Gerindra (국가 대약진당) ⑨ Partai Hati Nurani Rakyat /HANURA (국민양심당) ⑩Partai Nasional Demokrat /Nasdem (민주민족당) ⑪Partai Bulan Bintang/PBB (초승달당) ⑫Partai Keadilan dan Persatuan Indonesia/PKPI (정의통일당)

2)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패스캔들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재집권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32%에서 2013년 2월 8.3%로 당 지지율이 추락하였고, 2012년 6월 조사한 부패정당 순위에서도, 44.8%가 민주당, 6.5%가 골까르당, 2.4%가 투쟁민주당이라는 응답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직후 당 자문회의의장인 SBY는 당을 재건하기 위해, 비대위적인 당 최고회의(Majelis Tinggi Partai Demokrat)를 활성화하여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당총재를 추출시키는 과정에 당은 분열되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한편 미국식 전당대회 방식을 통한 흥행몰이를 꾀하고 있지만 섀투리은행, 함발랑선수촌 스

캔들을 빌미로 공세를 늦추지 않는 경쟁자들의 작전에 말려 계속 신음하고 있다.

3) 제2당인 골까르당은 당 총재인 아부리잘 바끄리가 일찍 대선출정을 선언하였지만, 비즈니스 그룹의 재정위기, 라벤도 재앙, 로스차일드와의 법정 분쟁등 악재가 겹쳐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대선후보 교체압력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 교체압력은 당내 다른 계파 그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4) 제1, 제2당이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사이, 제3당인 투쟁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PDIP)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당의 공천을 받아 자카르타 주지사에 거뜬히 당선된 조꼬위가 바로 그 돌풍의 주역이다. 대선공천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메가와티 총재가 총선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아직 미련을 두고 있으나, '조꼬위 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을 뿐이다. 실기하는 경우에는 추파를 던지는 경쟁자들에 의해 '안현수 사태'가 연출될 수도 있다. 최근 조꼬위 주지사관저 도청사건과 그 대응책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롱튼 투쟁민주당은 '조꼬위 효과'의 여세를 몰아 최근에는 전략지역인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도 당이 공천한 간자르 뿌라노위가 집권당에 낙승을 거둔 바 있다.

5) 한편 이슬람국가주의(Darul Islam) 이념에 뿌리를 둔 이슬람진보정당으로서 2004년,2009



년 총선에서 수도권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복지정의당(Partai Keadilan Sejahtera/PKS)은 당 고위층의 부정부패, 일부 다처제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당을 대표하는 루뜨피 하산 총재가 소고기 수입쿼터 수위협이라는 뗏에 걸려 부패척결위(KPK)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같은 당 소속인 수스위노 농업부장관, 당 오너격인 힐미에게까지 불뚱이 튀고 있다.

6)이상은 지난 총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통령후보를 낼 수 있는 유력정당의 현 주소를 살펴봐왔다. 그런데 PAN, PKB,PPP,HANURA와 같은 중,하위권 정당 중에서 유독 두각을 보이고 있는 정당이 있다면, 바로 뿌라보워 장군이 이끌고 있는 게린드라당(Partai Gerakan Indonesia Raya/Gerindra)이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력삼아 20~30대 소장파 참모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여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2011년에 출마선언을 한 이래 뿌라보워를 현재 2위권으로 안착시켰다.정치 분석가들이 말하는 뿌라보워의 성공비결이라면, 농민연합회(HKTI), 전통상인협회장(APPSI), Pencak Silat (IPSI)등의 수장을 맡으면서 친서민 행보를 보인 점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98년 5월 사태' 이후의 인권유린문제는 족쇄가 되고 있다.

7)이번 총선에 처음 참가하는 신규정당인 민주민족당(Partai Nasional Demokrat /Nasdem)의 수르야 팰로 총재는 언론재벌(메트로 TV)이

라는 이점을 살려 '수까르노식' 정치행보를 흉내 내보지만 비친화적 이미지와 비자바인(아찌)이라는 감점요소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8)지난 선거경향을 분석해보면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지역안배, 종교, 문민,군부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는 사실이다.건국이후 역대 대통령 출신지를 보면, 초대 수까르노에서 시작하여 6대 유도요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3대 하비비 한 사람만 빼놓고는 모두가 동부자바,아니면 중부자바 출신이었으며, 모두가 이슬람 교도였다. 하비비도 직,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있다가 승계받은 경우이다.과연 이번에는 '비자바출신 대통령'의 선례가 나올것인지도 관심사 중 하나이다.

3 대선정국과 한인사회

드라마 '정치의 계절' 제 1막인 국선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도네시아 국운을 가늠할 결정적 시점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황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인사회도 이번 총선결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부와 이권이 인도네시아 경제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남의 나라 '정치 축제'가 아니다. 그간 우리는 이곳의 문화와 관습에 동화되면서 각자의 생업을 위해 헤쳐 나왔다. 어느덧 현지 정세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보려는 습관이 몸에 베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정국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걸음로 다가오고 있다.

김문환/편집위원



우송대, 한인회 방문

우송대학교 해외시장 조사단이 11일 화요일, 한인회를 방문하여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현황, 진출 시 유의점과 진출 방법 등 한인동포의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눴다. 조규철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교민역사를 설명하며 “겁먹지 말고 도전해라! 성공하고 싶다면 인도네시아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다”이라며 “기존의 아이템을 넘어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하여 시도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학생들을 환영하였다.

김문환문예총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넓고 크고 많은 나라이다”라며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300개의 종족과 다양한 문화, 풍부한 노동자원과 지하자원을 보유한 기회의 나라임을 강조하며

역사 변천사를 간략하게 짚어 주었다.

이소왕 변호사는 “인도네시아가 기회의 땅이 분명하지만 현재 다국적 기업은 현지채용을 선호한다”며 “젊고 패기 있는 학생들은 현지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언어와 문화를 열정적으로 익혀 시대가 요구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송대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경험과 실질적인 공부가 많이 되었다며 한인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감사패전달

2월14일, 한인회는 귀임을 앞둔 최창식 하나은행 은행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인회는 “한인회 임원 및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써 헌신적인 봉사와 수고를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관계 교류와 발전의 많은 공헌을 인정하여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전했다.

한인회(회장 신기엽)는 22일 외환은행 조용우은행장(한인회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조용우 은행장은 “정이 많이 들었는데 떠난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정을 나누고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주아세안대표부를 소개합니다!

2012년 10월 주아세안대표부가 자카르타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1살이 조금 넘는 신설공관으로서 주아세안대표부가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재외국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ASEAN(아세안)이란 무엇인가요?

ASEAN은 동남아시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는 지역기구의 약칭 명칭입니다. 1967년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고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이 지역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처음 결성한 기구입니다. 1984년 브루나이가 독립 후 가입했으며, 냉전이 끝나면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차례대로 가입하여 현재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 28개국이 지역 안보 및 경제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지역기구로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있고, 54개 아프리카 국가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을 결성하고 있듯이,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기구로서 정치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내 협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ASEAN의 회원국도 아닌데, 왜 주아세안대표부를 두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1989년 ASEAN과 대화관계를 맺은 후 ASEAN과 전략적인 외교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ASEAN의 핵심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이기도 합니다. 대ASEAN 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2012년 10월 ASEAN 관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주아세안대표부를 설립하고 주아세안대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ASEAN 10개국은 2008년 완성된 ASEAN 헌장(ASEAN Charter)에 따라 2009년부터 각국 ASEAN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ASEAN의 대화상대국들도 연이어 아세안대사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아세안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호주입니다. 모두 자카르타에 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3. 주아세안대표부는 왜 자카르타에 위치하나요?

ASEAN 협력 전반을 조율하는 ASEAN 사무국이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SEAN 사무국은 1976년 협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ASEAN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증으로 현재 70A Jalan Sisingamangarija에 건물을 두고 있습니다. ASEAN 관련 회의는 ASEAN 회원국 전역에서 연중 개최되나, 그 중 상당수가 사무국에서 열릴 뿐 아니라, ASEAN 관련 대다수 행사 및 회의, 협력 사업 준비가 사무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명실공히 ASEAN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ASEAN 대표부는 ASEAN 관련 현안 및 정보를 파악하고 현실감 있는 대ASEAN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자카르타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4 주아세안대표 부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카르타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관계 전반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대사관이 있으며, 주인도네시아대사가 대사관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있지요. 이와는 달리 주아세안대사는 우리나라와 ASEAN간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양자관계업무를 담당하는데 반해, 주아세안대표부는 정치, 경제, 문화, 관광 분야에서 ASEAN 회원국 10개국과의 다자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유엔 대표부나 OECD 대표부가 다자·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셈이지요.

5 서울에 위치한 한-ASEAN센터와 자카르타 상주 주아세안대표 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아세안대표부와 한-ASEAN센터는 우리 정부 대ASEAN 외교의 양대축입니다. 한-ASEAN센터는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간 협약으로 개설된 「국제기구」로, 여러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ASEAN 인식을 높이고

ASEAN 각국과의 기업 교류 및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도 한-ASEAN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ASEAN센터, 일-ASEAN센터가 각각 활동 중입니다.

반면 주아세안대표부는 ASEAN 외교의 중심지인 자카르타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대ASEAN 외교 및 협력활동을 총괄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부는 문화교류와 같은 공공외교 뿐 아니라 한-ASEAN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정부간 논의를 지원하고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와 같은 안보 이슈 및 한-ASEAN FTA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제도적 협력틀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게 ASEAN이 왜 중요합니까?

ASEAN을 하나의 거대한 지역단위로 본다면, 우리나라와 ASEAN의 협력관계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SEAN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시장이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중동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외

건설시장입니다. 또한 ASEAN 지역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문지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재외국민 약 28만명이 ASEAN 지역에 체류 중이며, 주한외국인 중 약 20%인 31만명의 ASEAN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거나 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SEAN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ASEAN 10개국을 ASEAN을 단일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ASEAN의 목표대로 2015년까지 ASEAN 역내 경제통합이 이뤄진다면, 동남아시아 10개국은 6억 인구, GDP 2.3조불의 대규모 단일 경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ASEAN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규모 상품 생산기지이면서 국경 장벽이 없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ASEAN은 한, 중, 일 및 여타 주요 국가들을 ASEAN 협력틀에 초대하여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18개국 정상 사이의 전략적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북한을 포함한 27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정치안보협의체인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역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협상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여러 동아시아 협의체에서 ASEAN은 중심적 역할을 자처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협의체에 모두 참가중인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ASEAN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주아세안대표부의 올해 계획은?

올해는 우리나라와 ASEAN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입니다. 함께 걸어온 25년 역사를 되새겨보고, 현재의 외교관계를 기념하면서, 미래의 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는 한국 뿐 아니라 ASEAN 도시 곳곳에서 국제회의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아세안대표부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개최 예정인 대화관계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ASEAN 각국 및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자카르타에 모여 우리나라와 ASEAN의 인적, 문화적 교류현황을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또한 ASEAN과 우리나라의 문화 및 예술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자카르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짜가 확정 되는대로 여러분께 알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2.24
주아세안대표부 배기현 선임연구원



JIS IASAS

(학생기자 권기남)



2월을 맞으며 JIS는 다시 한번 IASAS 준비를 위해 바빴다. 올해 JIS는 지난 첫번째 시즌 배구를 이어 시즌 2의 농구, Cultural Convention (문화 교류 대회)과 시즌 3의 육상경기, 총 네번의 대회를 개최한다.

우선 두번째 시즌 IASAS 는 지난 2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다. 교내에서는 농구를 위한 응원 이 한창이었다. 한국인 선수 김진우 (11학년)가 농구팀의 주장으로 선발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 때문에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남자 팀은 5위, 여자 팀은 동상을 수상했지만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금메달 감이었다.



다른 IASAS 학교에서는 수영, 럭비, 테니스가 진행되었다. 수영에서는 홍지웅 (11) 학생이 자신의 이전 기록이자 JIS기록 4개를 갱신했으며 남자 수영과 테니스 팀은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다가오는 3월의 문화 대회의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JIS에서는 미술, 춤과 연극을 개최한다. 미술은 김어진 (11), 나혜지 (12) 와 조서영 (10)학생들의 작품들이 학교 대표 작품들로



선발되었으며 대표 참가자로는 김유진 (11) 학생이 선발되었다. 춤은 이진욱 (12), 연극은 강신형 (12)이 JIS대표로 공연을 할 예정으로 3월 5일부터 9일간 JIS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다.

한편 TAS(대만국제학교)에서는 토론과 웅변 대회를 개최하며 ISKL(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는 IASAS Music행사가 개최된다. 웅변의 종목 중 Original Oratory 는 김영집 (12), 음악에서는 피아노 연주 대표 권기남 (12), 정도훈 (10)이, 관악기중 플루트는 김정민 (12), 도유정 (10), 색소폰은 송선호 (12), 도우현 (12) 클라리넷은 최지원 (12), 이종화 (12), 김재현 (12) 이 참가할 예정이다. 현악기는 바이올린에서 이승희 (12), 최재병 (10), 강수민 (9), 첼로는 강동우 (12), 베서진 (12), 이예림 (12), 차현진 (10), 비올라는 최인영 (12)이 참가하며, 성악은 알토의 최시아 (12), 베이스의 강룡원 (12), 박현규 (12)가 JIS 대표로 참여한다.

매번 IASAS 경험은 참가자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교에게 중요한 순간들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3월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음악에서 이례적으로 없었던 다수의 한국 학생들이 참가하는 만큼 JIS의 한국 학생들의 재능을 널리 알릴 것이다.

JIKS

JIKS의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실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승익)는 지난 2013년 12월 17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주성)와 교육지원 및 교육협력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MOU체결을 하였다.

본 체결을 통해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의 해외교육봉사단(지도교수 권순희)은 본교에서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을 알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 “행복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은 자



[해외교육 봉사단의 열정적인 수업 모습]

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본교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자신의 행복한 진로를 찾아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꿈을 향해 나아가라! JIKS 초등 제끼회 졸업식 개최

2014년 2월 12일(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

에서 제 35회 초등과정 졸업식이 열렸다.

총 졸업생 2392명 중 새로운 졸업생 49명을 배출한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내빈 및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나래홀에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사 보고 후 졸업생들은 한명씩 무대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고 모든 귀빈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졸업생들이 무대에 머무르는 동안 무대 뒤 스크린에는 그들 각자의 장래 꿈과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띄워졌는데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부모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와 앞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짐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상 이동민(6-3), 학교장상 유희수(6-1), 한인회장상 이현진(6-1), 재단이사장상 이지원(6-3), 민주평화통일협의회사무처장상 문희진(6-2), 모범상이정민(6-3) 외 8명 등에 대한 수상과 졸업생 전원에게 대한 꿈나무상 수상이 이루어졌다.

JIKS 김승익 교장은 학교장 회고사를 통해 ‘오랫동안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말과 함께 졸업생들이 그들의 꿈을 실천해 가기를 당부했고,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대신하여 이인호 총영사의 축사, 승은호 재단 이사장의 축사, 한인회장을 대신한 조규철수석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귀빈 축사의 많은 부분에서도 꿈을 키우자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송사는 재학생대표로 박상은(5-2)양이 선배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JIKS 퇴직교사들에 표창 수여

2014년 2월 10일(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김영선 대사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 퇴직교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사관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5년 이상 JIKS에서 근무하다 2월에 퇴임하는 김일영 행정국장과 5명의 교사들에게 재외동포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기리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시상식 후 대사관 구내식당에서 이어진 식사 및 간담회 자리에서 김영선 대사는 퇴임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JIKS가 오랜 전통과 좋은 시설을 갖춘 자랑스러운 재외학교임을 강조하고 졸업생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서 JIKS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또한 앞으로 자카르타 미래의 한인 사회를 이끌 2세대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학교 측에 당부했다.

올해 2월 정년퇴임하는 이정분 선생님은 이날 표창장을 받고 ‘그동안 JIKS에 몸담은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표창장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대사관의 이러한 배려가



현직 교사들에게 고무적인 분위기가 될 것’ 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수상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다.

김일영(행정국장, 17.5년 근무, 정년퇴직), 이정분(초등미술교사, 12년 근무, 정년퇴직), 이은숙(초등교사, 18년 근무, 정년퇴직 후 한국복직), 이혜경(초등교사, 14년 근무, 한국복직), 현명화(초등교사, 14년 근무, 한국복직), 천재희(중등미술교사, 5년 근무, 한국복직)



의 발자취를 따라 멋진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숙연하게 낭독하였고 졸업생 답사는 이동민(6-3)군이 후배들을 격려하는 말에 덧붙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인니어를 사용해 원어민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을 낭독하여 청



중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대부분의 졸업생이 JIKS의 중등과정으로 진학하는 탓인지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6년간의 성장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진행된 훈훈한 졸업식이였다.



2014년 2월
월간경제브리핑

깔리바루항 연간 750만 TEU 〈新신판중브리옥항〉

처리능력 갖춘다

인근 고속도로 및 수송 열차와 연결 예정

국영항만 펠린도II(PT. PelindoII, 이하 IPC)는 기존 북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판중 브리옥 항만이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항구 처리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新 판중브리옥 항으로 불리는 깔리바루 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북(北) 깔리바루 컨테이너 터미널과 쯔라마야(Cilamaya)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북깔리바루 1단계사업은 190만 TEU 처리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2015년 개장을 목표로 올해 착공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북깔리바루 2단계(130만 TEU) 및 쯔라마야 1단계(320만 TEU)사업도 추진된다.

깔리바루항구는 판중브리옥 항 옆에 건설될 예정으로 완공된 후에는 연간 450만 TEU 처리 능력을 갖추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언론 드떡파이낸스 31일자에 따르면 IPC의 기술국장 페리알디는 이날 “북부자카르타 깔리바루항의 제1터미널은 2014년 12월에 400m 완공, 그리고 2015년 6월말까지 800m 완공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제 2터미널과 제 3터미널은 2017년 7월 완공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IPC 측은 깔리바루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각각 150만 TEU 처리능력을 보유, 전체 3개 터미널이

총 450만 TEU 처리능력을 갖추는 것을 1단계 사업목표로 구상 중이다.

페리알디 국장은 “우리는 깔리바루항의 처리능력을 이후 연간 750만 TEU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자신했다.

IPC에 따르면 깔리바루항은 건설에만 총 25억 달러가 투입된다. 깔리바루항은 이후 항구 주변 고속도로와 수송열차와도 연결될 예정이다.

페리알디 국장은 “깔리바루항은 또한 항구의 남부 및 동부 지역의 고속도로들과 연결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특히 짜카랑-찌비퐁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판중 브리옥항, 마깎 브리옥 지역을 지나는 수송열차와도 연결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깔리바루항은 장기적으로는 KBN 짜깁과 마룬다 공단을 잇는 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이는 자사마르가 도로공단과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IPC 측은 깔리바루항 운영에 따라 발생할 인근 지역 교통체증을 줄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깔리바루항을 향하는 전용고가도로를 건설하고 판중브리옥 자동차터미널에 항구에 진입하는 중앙 입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 내년 외국계 건설기업 감사 나선다

연간보고 불이행한 외국기업 많아...
국내 건설업 보호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외국계 건설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발족에 앞서 국내 시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책으로 풀이된다. 헤디안또 W 후사이니 공공사업부 건설부장은 “외국계 건설기업 중 일부는 정부에 연간 회계보고를 성실히 보고하고 있지 않다. 사업을 등록할 때나 갱신할 때만 정부와 접촉한다 “며 “이들은 연말마다 법적 절차에 맞게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중인 외국계 건설서비스 업체는 309개로 2010년에는 207개였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일본계 시공사이며, 다음으로 중국, 한국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 5호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 5호에는 외국계 건축시공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가지가 명시돼 있다. 첫번째 국내 건축 시공사와 합작운영을 실시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자들을 기술직과 관리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외국계 시공사는 현지 시공사에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며 건설부에 연간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헤디안또 공공사업부 건설부장은 “이 규정 외에도 외국계 시공사는 인력이주부의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추방당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력이주부 규정 중에서 건축시공사들은 외국인 기술자 관련 규정을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규정에 명시된 외국인 기술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은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수 없다” 고 덧붙였다.

3월부터 국내선 항공운임 8~9% 인상

항공사 “루피아화약세, 연료가 상승 부담 느껴”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항공운임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유류할증료(Surcharge) 징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항공권 가격은 현재보다 약 8~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언론 콤포스 13일자에 따르면 헤리 박띠 교통부 항공교통국장은 이날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료 가격 상승과 미 달러대비 루피아화 약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미 달러화로 지불해야하는데 루피아화가 너무 약세인데다 소비자들은 항공료를 루피아로 구입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운영에 부담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고 덧붙였다. 유류할증료 부과는 노선거리와 항공기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제트기의 경우 노선거리

664km(비행시간 1시간)당 6만 루피아이며, 프로펠러기는 348km(비행시간 1시간)당 5만 루피아이다. 거리와 비행기 속력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높아진다. 이는 부가세(PPn) 10% 가 미포함된 금액이다. 이와 같은 신 규정은 2월 10일까지 이미 예약된 항공권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임에 대해 교통부는 매 3개월마다 루피아화 시세와 연료가격을 재검토해 인상 및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루피아화 시세와 연료가격이 회복되면 이 유류할증료 규정을 철폐할 예정이다. 교통부 헤리 항공교통국장은 “항공권에 운임과 유류세를 별도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잉책정 및 부당이익 등으로 간주하여 운항 노선 수 감축 등의 행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라고 강조했다.

남부자카르타 시마뚜빵, 새로운 오피스지구로 뜬다

외국계 기업 입주율 70%달해... 외곽 연결 고속도로 접근성 좋아

외국계기업 사이에서 남부자카르타 시마뚜빵 지구로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마뚜빵 지역은 자카르타 교외 공업단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도심 한복판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특성상 도심부로의 이동이 적은 조건이 맞는 기업들이 시마뚜빵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뚜빵 지구는 사무빌딩이 모여있는 수디르만대로 등 도심부에서 십여 킬로미터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특히 자카르타 외곽순환선(JORR)과 접해있어, 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외국계 공장이 많은 자카르타 교외 서부 자바주 브카시 공업단지로 이동할 수 있다. 건설중인 자카르타 외곽순환선이 전면개통되면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과 서부자바의 트락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시마뚜빵의 교통이 대폭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마뚜빵 지역은 도심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부동산서비스회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페리 조사부장에 따르면 작년 이 지역의 평균임대료는 1㎡당 18~20달러였다. 이는 중앙상업지구(CBD)의 1㎡당 23~35달러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컨설턴트 JLL의 안톤 부장은 “시마뚜빵 지구에 사무실을 분양 및 임대하는 기업의 약 70%가 외국계 기업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외국인 거주 아파트가 많고 상업시설, 국제수준의 병원, 인터내셔널 스쿨과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재원의 경우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에 사무실을 구하기 때문에 시마뚜빵이 매우 적합한 오피스 지구로 꼽히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은 과제도 있다. 시마뚜빵 지역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은 높지만 일반도로는 좁기 때문에 도심과 마찬가지로 교통정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전기료 8~13% 인상 확정

5월부터 단계적 인상 . 연말까지 38.9%~64.7%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용전기료(TTL)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마다 중규모 기업군(I3)은 8.6%, 대규모 기업군(I4)은 13.3%의 전기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료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증시와 외환시장 불안 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 20일자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차르만 전력국장은 “I3군 중 상장된 기업과 I4기업군에 대해 전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각각 연말까지 총 38.9%, 64.7%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 확정된 인상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며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두 기업군 모두 보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요금은 6,600볼트 암페어(VA)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고급주택군(R3),

6,600VA~200킬로볼트 암페어(kVA)의 전력을 소비하는 중규모 기업군(B-2), 200kVA 이상 소비하는 대기업군(B-3), 6,600VA~200kVA를 소비하는 공공기관(P-1)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 설명했다. 이들 부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조금 혜택이 중단됐으며 해당 부문에 대한 요금은 매달 루피아화 환율, 인플레이션을, 유가(ICP) 변동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

국영 전력회사 PLN의 베니 마르분 상업국장은 “의회 예산처가 올해 전기료 보조금을 감축함에 따라 전기료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며 “이로써 정부예산 중 총 10조9,600억루피아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I3 산업군에서는 1조 3,900억루피아, I4는 7조 5,700억루피아, 그리고 4개부문에 대한 요금조정 실시로 2조루피아 가량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도심속에 문화산책

사회가 발전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또다른 갈망을하게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이번 헤리티지 탐방에서는 예술문화투어 입니다.

인도네시아an 이티스트들의 예술 세계는 어떤지, 조금은 이국적인 문화산책, 그리고 한발짝 더 문화의 세계로 접근할수있는 좋은 기회도 될것입니다.

장소: 꼬망 갤러리 (두타 갤러리, 애드윈 갤러리, 코이 갤러리).

시간: 3월 15일 9시50분— 두타갤러리 — 애드윈 갤러리 — 코이 갤러리

집합장소 : Jl. Kemang Utara 55A, Jakarta 12730 Indonesia
021-7197528 두타 갤러리 입니다.

애드윈 갤러리 - Kemang Raya No21, Kemang Jakarta 12730
021-71790049

코이 레스토랑 - 꼬망 주유소 옆

참가비: 20만 루피아 (점심식사 비용; 메인코스 사이드 디쉬 티 등 제공) 일인당 비용

참가인원: 15명 (빠른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 접수: cerahyun114@gmail.com

이수진, 김주현(085885346534)

검도인 모집안내

대한검도회 인도네시아 지회가 2014년 1월 27일부로 승인되어 기 검도를 하신분이나, 하시고자 하는분 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검도 지도및 보급을 하려고 하오니,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성인 검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8시까지
열린교회 (한국 국제학교 근처)
체육관에서 실시
2. 학생 검도: 3월 중순부터 한국국제 학교에서
주1회 실시
3. 기타 1) 수련자는 대한검도회에서 실시하는
승단심사에 참여 가능
2) 수련자중 인도네시아 대표선수
선발전을 거쳐 10월 제주도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 가능
3) 죽도 및 도복은 당 협회에서 구입가능

* 연락처: 전무이사 박 정호(4단)
081316869121
사무국장 박 시현(2단)
081586909000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검도협회
대한 검도회 인도네시아지회 회장 강 희중

땅그랑 반튼 한인회 3월 소식

진정한 한인 속에서 하나되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3월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안고 힘차게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새봄의 꽃향기 듬뿍 안고 희망의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지난 2월 6일 목요일 찌뜨라라야 지역 한인 2세들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2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음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찌뜨라라야 지역을 시작으로 범위를 넓혀 땅그랑 전체로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2. 땅그랑 문화원 탐방(뜨개질 강좌)

작년 6월 중순경 땅그랑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뜨개질강좌, 회화강좌, 한지공예 강좌, 기타강좌, 클라식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뜨개질 강좌는 손미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약 20여명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땅그랑 문화원으로 놀러 오세요.~~~^^

정기적으로 땅그랑 한인회 소식을 듣고 임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한인회 사무실(021.9179.6313)이나 이메일(kortangerang@korea.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출발 아름다운 열매

유난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땅그랑 찌뜨라 지역에 땅그랑 코리아 (회장:김 재열)이라는 모임이 있다. 처음 땅그랑 찌뜨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골프를 같이 하면서 타국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친목회로 출발했는데 같은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까지 38회의 모임을 가지면서 찌뜨라 지역 특별히 아버지 없는 다문화 가정을 돕고 있다. 현재 9가정을 돕고 있는데 1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다

가구당 쌀 20kg 라면1box 식용유2kg 현금 50만 루피야를 지원하면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 땅그랑 코리아 모임은 출발때에는 찌뜨라 코리아으로 출발 했으나 많은 관심으로 참여 지역과 인원이 확대되면서 땅그랑 코리아으로 개명하고 현

재 25명의 회원이 월1회 모임을 갖고 다문화 가정을 도와 왔다.

이곳 다문화 가정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서너명까지 되는 가정도 있는데 가장인 어머니는 대부분 회사 식당이나 청소부 일을 하고 있어 모두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했었다.

1대 회장으로 전덕천회장이 그간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제2대 김 재열 회장 취임하면서 이 소식이 땅그랑 지역에 알려 지고 이번 모임에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회장:하연수)까지 발벗고 나서 매월 1,000만루피야를 지원하기로 하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김 재열 회장은 인터뷰에서 친목회에서 시작한 나눔의 일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사포의 봄

시 : 김길너 / 그림 : 이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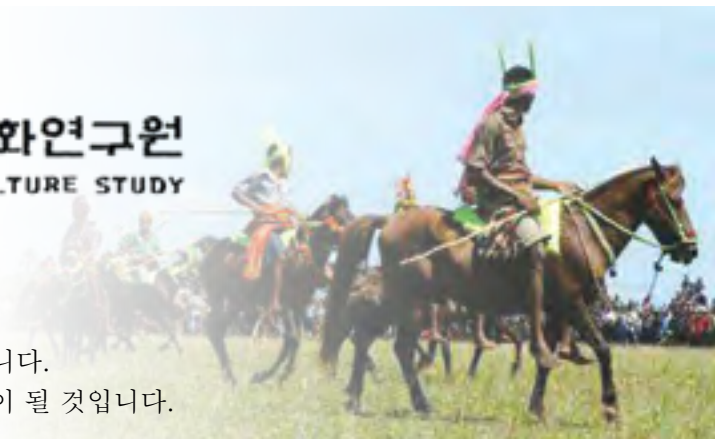
청사포 바닷가
등대 보이는 낮은 언덕
삼백 년 된 당산 소나무 두 그루
서로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한 자리에서도 마주 볼 수 없는
기막힌 사연 알 길 없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모습
달았음을 알 것도 같아
어저다가 들려오는 동해남부선 기적소리
빨간 등대 지붕을 돌아
방파제 큰 돌 데미에
구신고래 울음 뿜어두고
멀어져간다
해풍에 키를 낮춘 봄동 지천인 텃밭
한가운데, 서둘러 핀 청매화 한 그루
서늘한 꽃망울은
오래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뒷모습

김길너

1990년<시와비평> 등단

시집 <푸른 정조>, <바다에게 의탁하다>, <키 작은 나무의 변명>

제13회 한국해양문학상(시) 수상



247회-250회 영혼의 섬, 숨바

미지의 섬으로 남아있는 백단향의 섬, 숨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지식묘의 세계로 떠납니다.
 오지여행 작가와 함께하는 귀한 문화 탐방이 될 것입니다.

● 일시

3월 21일 (금) 06:00 수카르노 하타 공항 출발
 3월 24일 (월) 19:30 수카르노 하타 공항 도착

● 탐방 일정

21일: 서숨바 전통마을
 22일: 사반나에서 펼쳐지는 빠솔라 말축제
 23일: 왕족과 서민들의 고인돌, 렌디룸부왕가 노예마을,
 아늑하고 고요한 빠르캄베라 해변
 24일: 발리 빠당빠당해변

● 진행: 오지여행 전문가 김성월(0818599012)
 ● 연락처: 0817708253 (박선이 수석팀장)
 081584797879 (채인숙 부원장)
 ballonjoa@hanmail.net lovekoin@hotmail.com

한*이니문화연구원 주소이전 Jl.Gatot Subroto Kav.58 코리아센터 404호(대사관 옆)



한*이니문화연구원 25회 열린강좌 보로부두르 큰 이야기

2014년 한*이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의 첫 공개강좌가 능인정사의 성찬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2월 8일, 새로 이사하여 동지를 튼 코리아센터 4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로부두르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있었지만, 이번 강의를 지적학적 관점으로 본 인도에서의 불교 생성 시점과 보로부두르의 공통점을 서두로 시작하였고 보로부두르 사원 3층 제 1회랑 주벽의 부처님의 일생 부조 120장면 중 여러 장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유익한 강좌가 되었다.

강좌의 시작은 이동균 회원의 붓다의 진리를 갈망하는 시 낭송, 그리고 강좌의 마지막은 사공경 원장의 시 낭송(박정자 시)으로 막을 내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더할 수 있었다. 한*이니문화연구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시작된 첫 강좌에 인도네시아 문화와 역사의 큰 중심이 되는 보로부두르 사원에 관한 공부를 많은 회원들과 함

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성찬스님은 '시간 속에 멈추어 그대로 시간이 되어버린 무아(無我)의 공간', 보로부두르의 장엄한 이야기를 섬세한 감성의 파장으로 풀어내었다. 오늘 강좌에는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였으며 특별히 김 영선대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의 구심점을 알고, 문화 예술에 관한 지적 열망을 나누는 훌륭한 강좌가 되었다. 보로부두르는 우리가 지혜와 자유를 향한 여행에서 깨달음과 극치의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이니 문화연구원의 강좌는 교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공 경 원장은 새 보금자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첫 열린 강좌의 소회를 밝혔다.

(한*이니문화연구원 제공)



Indonesia Manado "Bunaken" / 30m 수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푸르른 바다속
수중에서의 태양은 그저 작은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태양을 머금은 붉은 산호를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SAMICK



대표이사 이형국

삼익악기는 지난 1992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인을 세웠고 2010년에는 중국 공장에 있었던 모든 생산 시설을 이곳 찢릉시로 옮겼다.

공장 부지만 39만6694m²(12만평), 건물 면적은 13만2231m²(4만평)에 이르고 전체 근무 인원만 3,000여명에 이른다

삼익악기는 이곳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피아노의 경우 전체의 90%(나머지 10%는 독일에서 현지 생산)를, 기타는 전량을 생산하고 있다. 삼익악기 생산의 중추시설을 삼익인도네시아 법인이 맡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악기 완제품들은 한국의 본사, 인터네셔널 거래처 등 전세계로 수출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자카르타에서 차로 1시간쯤 거리에 위치한 찢릉시 삼익악기 인도네시아 생산 공장

특히 삼익인도네시아는 지리적 여건상 생산을 위한 핵심지인 동시에 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로 현지 법인을 세운지 23년이 되었고 그동안 현지화에도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00명에 가까운 현지 직원들과 삼익 인도네시아 법인 권희정 대표를 포함한 국내에서 파견



한 주재원들 14명이 유기적으로 최고 품질의 악기 생산을 위해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현지 직원들의 기본급을 20%가량 올려주고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을 부추기고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 생산성향상도 눈의 띄게 나타나고 있다.

어쿠어스틱 기타의 경우 지난 2007년 당시 1인당 하루에 평균 0.7대를 생산했지만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1.2대로 늘었으며 품질면에서도 바이어의 불만 제기율이 0.5%대로 줄어드는 등 비약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삼익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에서 기타 판매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고품질의 Gibson(Epiphone) 및 Fender OEM 및 독일의 유명 브랜드인 Seiler 를 인수하여 독일 및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특히 기타 같은 경우 Gibson과 Fender를 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OEM 공장은 삼익 인도네시아가 전세계에서 유일하며 이 모든 것들은 바이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



타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삼익인도네시아의 기타 품질수준은 FPFR(First Pass Failure Rate)이 3% 미만으로 바이어가 OEM 공장에 요구를 하는 5%에서 2%나 내리는데 성공 하였다.

이와 같은 품질향상으로 인하여 Fender측에서는 2014년도에 기존 오더 수량을 40% 늘려준다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 냈으며 Gibson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고가의 기타 주문을 더욱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삼익 인도네시아 에서는 삼익악기의 이문화 갈등방지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인도네시아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이 더 좋아



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CSR 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특성상 인력관리 및 숙련 기술자의 이직 방지가 중요한 경영 포인트 중 하나이며 최고 경영자 역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을 표방해 직원들이 더 좋아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며 의사소통에서 오는 오해가 예상외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공장 내 각종 안내문 및 표지판도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하고 한국 직원 모두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뇌물 수수 등 부패 만역에 대한 대책으로 자재 담당 직원들과 품질관리 검사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강령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장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공장 인접 초등학교, 장애인 단체등에 현물과 현금 기부, 장학금 지급 및 마을 잔치 개최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약기제조사라는 특성을 살려 인근 초등학교에 피아노 등 악기 기증과 피아노 선생님을 지원하고 있다.

찌레뽐 초등학교에는 피아노 및 기타 기증, 사무집기 및 컴퓨터를 포함하여 피아노와 영어 교사까지 지원을 이미 한 상태이다.

또한 찢릉시에 위치한 SMUN 고등학교에 연간 미

화 1만 달러씩을 기부해 성적이 좋아도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학업지속이 어려운 학생을 돕고 있다.

병원과도 연계해 HEE SOO라는 장애 고아원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곧바로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시설지원/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보조기구, 의약품을 포함하여 연간 미화 5천달러의 기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삼익 인도네시아의 노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정부나 유관기관의 관계가 개선 되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감이 제고되어 직원들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아울러 2012년 2월 23일에는 삼익악기 김 종섭 회장이 총재로 있는 코피온에서는 삼익 인도네시아 공장 근처인 찢릉시에 **삼익 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년 과정으로 피아노 조율, 악기 제고 목공예, 제빵, 봉제, 이/미용 기술 등을 가르치며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창업 혹은 취업 지원을 해주고 있다.





독립투쟁박물관-Museum Joang 45

사공 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여기 불의에 항거하는 젊음이 있다. 자유, 정의의 함성이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여기 하늘을 넘어가는 바람이 있다. 스콜처럼 부서지는 젊음이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최인훈은 <광장>에서 “인생을 풍문 듣듯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라고 말한다. 풍문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운명을 만나게 되며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그는 광장이라고 풀이한다. 오늘은 광장-MUSEUM JOANG 45에 가자. 광장엔 언제나 역사의 바람이 분다. 가서 지성의 방향을 달래며 아시아의 슬픈 전설을 이야기하자

네덜란드 식민지 기간에 이 건물은 네덜란드인 Schomper 호텔이었다. Schomper는 일본군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까 두려워 호텔을 비워버린다. 그럼에도 일본 점령군은 이 건물을 차지했으며 일본군 선전 활동 사무소로 사용했다. 또한 식민지 청년들을 회유하고 아

시아 태평양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이 건물을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군을 돕는 대신 이 건물을 젊은 독립 운동가들의 클럽 하우스로 사용하였다. 이 조직이 잘 알려진 아스라마 앙까탄 바루(Asrama Angkatan Baru Indonesia-인도네시아 신세대 그룹)이다. 이 조직의 지도자들은 수카르노, 하타, 스자리푸딘(Mt Sjarifuddin), 잠렉(M. ZZ Jamrek), 다요(Mr. Dayoh) 외에도 많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오직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독립, 이 한 가지만을 가슴에 두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비밀리에 전국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는 사이 동양의 오케스트라 가물란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또 물소(Banteng)라는 조직도 이 건물에서 창립되었다. 이후 이 젊은 조직들은 식민지의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반일 감정이 생기게 했다. 독립 선언 후, 8월 18일에 새롭게 성취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이곳에서 야자나무의 노래와 함께 Action Community가 결

성되었다. 1945년 8월 22일, 이 건물은 공식적으로 Youth Centre로 선언되었고, 그들 스스로 Menteng 31 Youth Group이라 불렀다. 독립 후 일본은 바로 퇴각하지 않았고, 1945년 9월 20일 이 건물을 습격하여 Menteng 31 멤버들을 체포했다. 이 건물은 독립의 본거지로 사용되었고 회원들은 독립 선언 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후 연합군 임시 정부에 또 다시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네덜란드에 대항하여 독립을 지키고 새로운 국가를 맞이하기 위해 스킨처럼 부서지며 적진에 뛰어든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1974년 8월 19일, 이 건물을 박물관으로 설립한다. 1945년과 1950년 사이의 독립투쟁을 생생하게 기록한 많은 사진, 다양한 그림과 디오라마, 문서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사용했던 유물들- 무기, 배지, 유니폼, 깃발, 군기, 훈장 등을 전시하고 있다. 독립을 대표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부통령 하타의 책상도 전시되어 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사진이 입구에 있다. 민족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체계바라는 1959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하나피(Hanafy-수카르노 제자이며 1967년 쿠바대사)를 포함한 민족 지도자들에게 인도네시아의 혁명을 격려했다. 쿠바의 영원한 혁명이 체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가자. 새벽을 여는 뜨거운 가슴의 선지자들이여 감춰지고 버려진 오솔길을 따라 그대가 그토록 사랑해 마지않는 조국을 해방 시키러 가자”

인도네시아국가위원회(지금의 국민협의회-M.P.R)가 솔로에서 열리는 사진도 보인다. 국회 설립 초기를 묘사한 다큐멘터리에는 중요 인물로 젊은 수카르노, 하타, 도지사들의 모습도 보이며, 청년단원들은 8월16일 이전에 수카르노와 하타가 지금의 독립 선언 박물관에 가서 독립선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디오라마도 있다. 그 당시 수카르노와 하타는 일본의 정치 조직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우리 민족의 대표는 두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청년단원들의 강요에 못 이겨

독립 선언에 서명을 한다. 수카르노 집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가슴 벅찬 사진과 그 옆에는 독립 선언문 복사판도 있다. 오직 독립이라고 외치며 투쟁하는 그림의 선두에는 당시 신문기자였으며 후일 3대 부통령이 되는 젊은 아담 말릭의 모습도 보인다. 자카르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IKADA 투쟁을 하는 장면에선 민중의 힘이 느껴진다.

인도네시아 여학생 호국단의 행진하는 모습도 붉은 양글렉으로 피어나며, 상인으로 가장한 여인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무기를 운반하며 비민주적인 식민 정책을 지구에서 부숴내기 위해 벌이는 독립 투쟁을 기록한 사진에서 투쟁 속에 더욱 단결된 여성들의 강인한 투지를 볼 수 있다. 여성들이 고통 속에 성채로 빛나고 있다. 독립 운동을 주체한 오르메 수하르조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는 인도 대사를 지냈고 꼬바요란에 대학을 세웠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 그에게 군인이 사열하고 경의를 표하는 모습도 보인다. 한 청년이 독립 투쟁에 나가기 전 종교지도자 놀로마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그때의 절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다.

1945년 9월 19일 수라바야에서 네덜란드와 맨손으로 투쟁에서 승리하여 호텔 야마토(YAMATO, 현 호텔 마자빠히트(Majapahit))에 네덜란드 국기(빨강, 흰, 파랑)에서 밑의 파란색을 떼고 인도네시아 국기, Merah Putih를 꽃으며 모두 하나가 되어 “독립, 독립”을 외치며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아름다운 그림에서 3·1운동의 함성을 듣는다. 정부는 이날을 영웅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도 혁명 정신이 나타났다. 땅그랑과 버카시 지역의 혁명을 담당한 청년 차이릴 안와르 (Chairil Anwar, 1922-1949년)의 진실과 분노에서 운동주를 만난다. 이때의 작가들은 45세대



(Angkatan45)라고 불렸는데 이들의 재능은 혁명 시기에 결실을 맺었다. 45년 세대의 문학 개척자 중 한사람인 안와르는 투쟁의 기운을 고취시키는 시를 쓴 독립 영웅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즐겨 낭송한 시, “나”는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용기를 상징한다. 서민층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 1969년 5월 20일 수하르토 대통령으로부터 문화공로상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예술 공로패를 받게 된다. 그가 죽고 나서 20년 후의 일이다. 애국가 Indonesia Raya의 작곡가이며 암울한 시대에 시로 혁명의 열기를 북돋았던 작곡가 Cornel Simanjuntak의 초상화도 전시되어 있다. 자와 티무르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슬픈 장면도 보인다. 독립 혁명의 영웅, 불멸의 장군 수디르만(Sudirman)의 불타는 생애는 그가 타고 다녔던 가마와 함께 넓은 대륙으로 펼쳐진다. 수디르만은 폐병이 악화되었지만 병색이 완연한 바삭 마른 몸으로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까지 족자의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지휘한다. 가마에 세계 악에 짓밟히는 약소국 인도네시아의 운명 앞에서 처절하게 투쟁한 장군의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의 역사가 담겨 있다.

재미있는 전시품은 초대 대통령이 공무에 사용한 자동차 번호판 “REP.1” 과 초대 부통령의 자동차 “REP.11” 이다.(Made in America) 이 자동차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방탄유리가 되어 있다. 또 한 대의 차는 수카르노 가족의 차 (번호판 B 9105)로 피한의 습격을 받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자동차에는 수카르노와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피해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아이들(메가와티와 그의 형제들)다니던 학교에 학예회가 있었는데 수카르노 대통령의 사상과 노선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시위하여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죽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세대의 차가 모두 지금도 작동이 된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각종 협상 장면을 보여주는 기록 사진 물로는 Renville 합의(1947년 12월), Renville회담 (1948.1.17;



전쟁 포로 교환), 인도네시아-영국-네덜란드 3자 협상 (1945.11), Robes Royem 회담 (1946년 9월), 원탁회담 (1949.8.23) 등이 있다. 1947년 벨기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3국은 중립의 위치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상을 중재했다. 그로인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가 무력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협상을 하게 되는 기록물도 있다.

이곳에서 나는 그 시대 우리나라의 어둠의 정체와 빛의 혼란과 지성의 방황을 만난다. 그래서 젊은 박인환은 “우리과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여, 해류가 부딪치는 모든 육지에선 거룩한 인도네시아의 내일을 축복한다,” 고 외쳤던가.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얼마나 포용하며 살았던가.

던져지지 못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용기를 가졌던 독립영웅들이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라고 말하고 있다. 체계바라처럼. 찬란한 햇빛을 태우며 서 있는 민족 영웅 16개의 흉상은 눈부셨다.



Jl. Menteng Raya No.31, Tel: 021)3909148, <개관> 화~일 : 9:00-15:00 / 토 : 9:00-13:00 <휴관> 일, 공휴일 입장료 : 5000Rp

■ ■ CNN이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 할 곳 50

47. 고창 동림저수지

매해 20만여마리의 쇠오리들이 이 지역에 날아 드는데 이 아름답고 보기 드문 경관은 2004년에 철새의 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그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1935년에 지어진 저수지는 낚시로도 인기가 많은 명소이다.

전북 고창군 흥덕면/성내면 >>



48. 아침고요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은 가평에 위치한 수목원으로 원예학 교수가 처음 설립했다. 20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진 수목원은 총 5,000여가지의 식물을 소개하고 있다.

티켓 가격은 주말과 휴일에는 8,000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평일에 7,000원, 12월부터 3월까지는 6,000원이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 255번지 >>



49. 축석루

남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누각은 논개가 몸을 던졌던 곳으로 유명하다.

누각에서 절벽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남강의 아름다움에 취해 뛰어내리지는 말도록.

<<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3-1



50. 삼광사 연등축제

매년 석가탄신일이 되면 부산의 삼광사에 아름다운 연등축제가 열린다. 사찰 전체가 셀 수 없는 연등으로 장식되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자랑하는 연등도 볼 수 있는 기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우리 인생을 성장 시키는 감동과 기쁨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일상은 늘 바쁘고 쫓기는 첩포 없는 문장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누가누가 빨리 가나 내기를 하듯이 때로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일까 자문해 보기도 한다. 숨 돌릴 틈 없는 삶의 쳇바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도 잃어만 간다. 그렇기에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은 메마른 삶에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열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성장 시키는 고마운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세계인 모두의 지구촌 축제인 소치 올림픽경기를 보고 있자니 우리 인간사와 같은 희로애락의 파노라마가 담겨있는 듯하다. TV를 통해 본 17일간의 숨 막히는 열전을 지켜보며 감동과 기쁨, 또 걱정의 눈물 또한 교차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의 대표 팀인 이상화 선수의 거침없는 최고의 질주는 2010년 밴쿠버 대회에 이어 올림픽 2연패로 우리 국민들에게 소치올

림픽에서의 첫 번째 금빛 레이스를 장식해준 최고의 기쁨을 선사했다. 이상화 선수의 든든한 활약에 국민들은 온 마음을 다해 환호했다.

또 피겨스케이팅의 여자 싱글 김연아 선수는 그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행복 엔도르핀이 듬뿍 솟아오르게 한다. 이번 소치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의 연기를 보기 위해 며칠 밤잠을 설쳐도 피곤하기는커녕 가슴 뭉클한 감동의 여운이 벅차도록 가슴에 남아있다. 올림픽의 개최지인 러시아의 홈 텃세가 심한 탓인지 훌륭한 연기를 펼치고도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그녀의 의연함에서 우리는 숙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수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연기를 펼친 것에 흡족하다는 그녀는 분명 우리들 마음속의 영웅이요, 퀸이었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 인생을 몇 줄로 요약하기란 쉽지 않지만,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녀만의 피나는 노력과 자신과의 싸움,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잊히지 않는 삶의 멘토(Mentor)가 될 것이다.

그녀는 메마른 우리의 정서에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행복의 여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숨 가쁜 경쟁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가끔 어떠한 틀에도 매이지 않는 무한의 판타지를 꿈꾸기도 한다. 무수한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서 먼 하늘을 향해 연을 날리는 마음처럼 가슴에 희망을 보듬게 한다.

그렇기에 희망의 목표를 이루는 올림픽 선수들의 모습은 분명 우리 삶에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리라. 17일간의 아름다운 절정의 순간들, 소치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TV화면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한창이다.

역사에 있어 수많은 예술가들의 본고장인 러시아답게 폐막식은 예술 감각이 뛰어난 연출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4년 후인 2018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초대하는 태극기와 함께 어린이들의 청아한 목소리로 애국가가 흘러 나왔다. ‘평창의 겨울’이 열린 겁니다. 평창 올림픽의 버전인 ‘새로운 지평’을 전 세계인과 함께 나누자고 제안하



는 동행을 의미하는 감동과 환상의 하모니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이승철, 조수미, 나운선의 목소리로 “아리랑”이 소치의 올림픽 스타디움에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자 이제 4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로 실감이 나는 것 같아 가슴이 뻗뻗해진다.

특히 소치 올림픽 폐막식에서 우리나라 KBS에서 보여준 통쾌한 자막은 저절로 웃음 엔돌핀이 솟구치게 한다. 이렇게 씩여 있었다.

한국선수 메달일지 ->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김연아, 은메달 (실제로는 금메달임), KBS가 센스 있다는 네티즌들의 평가도 있지만, 공영방송이라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아마도 마지막 고별 무대를 훌륭하게 치러낸 김연아 선수에게 감동을 주기위한 방송국의 배려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치 올림픽 폐막을 맞아 장문의 시를 게재했기에 잠시 소개하고 싶다. 미국의 유명시인인 캄 도우스는 프롤로그와 4개의 연, 에필로그로 구성된 자유시 형식 중 마지막 4번째 연은 특별히 ‘김연아를 위하여’ 라는 부제로 여자피겨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에게 헌정하고 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지금은 행복하다고/모든 것이 끝난 지금 이순간은 행복하다고/그녀가 금빛의 승리를 잃었을 때/주변 모두가 소란스럽게 그녀에게 속은 것이라 떠들었을 때/나는 그녀를 믿었다. 진정으로 믿었다/그녀의 안도감을/모든 무게가 사라진 후 그녀의 기분을/더 이상 돌을 짚어지지 않은 여왕의 기분을.../고통을 통해 이루어진 그녀의 몸/그런 그녀를 향한 질투와 분노의 불길들/그녀가 느낀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길고 긴 세월동안 불타는 그 불길 속에서/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녀가 느끼는 안도감, 기쁨과 평화/

그녀는 말했다. 나는 행복하다고/ 모든 것이 끝나서 행복하다고/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이제 그녀는 스케이트를 벗고/다시 보통 사람이 되어 땅으로 내려왔다/그리고 평범하게 느릿느릿 움직이며/ 그렇게 무대 뒤편으로 떠나갔다.

미국의 시인인 ‘캄 도우스’ 는 김연아가 은메달로 인한 뜨거운 판정논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녀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다.

그는 ‘퀸’ 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김연아의 여왕다운 품격과 인내심을 찬양하고 그녀가 선수생활을 마치고 평범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감동적인 시로 표현했다.

이제 웃고 웃었던 소치 올림픽에서의 드라마틱한 아름다운 날들은 끝났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일들은 많지만, 오직 자신과의 싸움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많은 이들의 감동드라마는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우리의 가슴 안에 영원히 잔잔하면서도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을 성장 시키는 감동과 기쁨을 준 올림픽 선수들이여! 감사 합니다!!





피낭 (Areca nut)

붉은 깨물의 유혹

일반명: 영 (Areca nut, Betel nut),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Pinang, Penang, Paan), 필리핀 (Bunga)

과 명: 야자나무과 (Family: Arecaceae)

학 명: *Areca catechu* L.

기원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 하나를 원산지로 추정

분 포: 파키스탄, 인도에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에 이르는 열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이 용: 세계 4대 향정신성 의약품 중의 하나, 피낭 야자 열매 씨앗과 Betel leaf(후추잎)를 싸서 씹는다.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필자가 피낭을 처음 접한 것은 파푸아뉴기니의 대로 한복판에서입니다. 처음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을 당시 치안이 안정되지 않고 부족들 간의 유혈충돌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한지라 몹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공항에서 수도로 가는 도중 뜻하지 않게 도로가 정체되었고 많은 원주민이 그룹을 이루며 여기저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온통 붉은색의 선혈이, 마치 동물의 피를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까만 얼굴 사이로 보이는 새하얀 치아엔 핏물 같은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생김새 및 전통적 이용

인도네시아에서 피낭(Pinang)/피낭시리(Pinang Siri)라 불리는 이 열매는 피낭 야자(Areca catechu)의 열매로 Betel nut 혹은 Areca nut이라고도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부탄, 파키스탄,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제도 같은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도 식용 및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합니다. 피낭 야자가 유명한 것은 우리에게겐 좀처럼 익숙하지 않지만 피낭 야자 열매를 씹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담배나 껌을 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랜 습관화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브틀(Betel

leaf, 일종의 후추잎)에 피낭 열매의 씨앗을 넣고 씹거나 석회가루(calcium hydroxide), 담배, 정향(Clove) 같은 첨가제를 넣어 같이 씹기도 합니다. 피낭 열매를 씹으면 타액과 반응하여 잇몸과 입가에 붉은 색깔의 물이 생기며 자극적인 알칼로이드가 분출됩니다. 시각적으로는 입속과 입가에 선혈이 어린 것처럼 보여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씹고 난 타액을 바닥에 뱉는 행위가 일상적이라 주변 바닥이 붉게 얼룩진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론 비위생적이라 하여 제재를 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Areca nut을 후추잎에 쌓아 각종 첨가제와 함께 씹으면 일종의 자극제로써 작용합니다. 땀 분비를 촉진하고 몸이 더워지는 효과가 있으며 약간의 각성작용과 마취 효과가 있어 배고픔과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인도네시아 시골 장터의 아낙들은 충치와 잇몸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서 무작정 피낭열매를 씹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생에서도 피낭 야자나무를 볼수있지만 주로 집 정원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집과 집의 경계를 이루기도 하며, 지붕이나 목재 등의 원료와 더불어 피낭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해발 900m 이하의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기온이 21~28℃ 이상인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나무의 형태는 약 20m 높이까지 자라는 중간 크기의 야자나무로 줄기의 지름은 10~15cm이며 곧게 자랍니다. 줄기는 회색이거나 연한 녹색이고 잎이 떨어진 자리가 일정 간격으로 동그랗게 남아있습니다. 6~9개의 거대한 잎은 줄기 끝에 모여 나며 왕관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각각의 잎은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며 코코넛 잎에 비해 짧고 갈라지는 작은잎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두터운 편입니다. 열매는 작은 달걀 모양으로 생겼으며 익으면 녹색에서 밝은 오렌지색으로 변합니다. 딱딱한 열매의 겉껍질(husk)을 제거한 후 씨앗을 꺼내 절편을 만들어 말리고 씹는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전통적 이용

후추잎에 피낭 열매 씨앗을 넣어 싸먹는 풍습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며 많은 국가에서 제례의식 행사와 더불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지역에서는 약 4,000년 전부터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사랑과 결혼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보편화되었는데, 피낭열매와 후추잎을 항상 함께 씹기 때문에 펠레야 뿔수없는 부부의 이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설화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양가의 결혼을 논의할 때 피낭 열매를 씹으면서 의논했던 풍습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역에서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피낭 열매와 후추잎 그리고 각종 첨가 향신료 등을 담은 상자를 내놓고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예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즘 차나 커피를 대접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모여 피낭 열매와 후추잎을 씹으며 대화를 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인도의 연인들이 입 냄새를 좋게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씹기도 했답니다. 부탄에서 전해지는 신화에 의하면 부탄의 한 부족이 사람의 생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뼈를 씹는 풍속이 있었는데, 8세기 경 Guru Rinpoche에 의해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가 이 야만적인 풍습을 없애고 대신 Areca nut과 후추 잎, 석회를 씹게 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요즘도 부탄에선 식사 후나 종교 제례 행사 중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도중에 Areca nut을 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 13세기의 고대 문헌에 일상적인 씹기 외에도 종교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특히 고대 수마트라, 마두라, 발리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말 모양의 Betel nut 절단기(Cutter)는 유명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바틱

을 염색하는 붉은 염료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나병이나 빈혈, 비만의 치료제와 가루로 만들어 치약이나 구충제로 활용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효과

Betel nut 씹기는 꽤 중독성이 있습니다. 씹을 때 니코틴처럼 약한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Betel nut에 들어있는 아레코린(Arecoline)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Betel nut은 전 세계 인구 10%가 습관적으로 이용하고있으며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다음으로 향정신성 약물 세계랭킹 4위에 들어갑니다.

국제 암 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 의하면 betel nut과 후추잎을 씹는 것은 발암물질이라 규정했습니다. 여러 실험과 논문에 의하면 Betel nut을 장기적으로 씹는 것은 잇몸에 손상을 입히고 구강암, 식도암, 위암등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산모가 임신 중에 Betel nut 씹기를 하는 것은 마치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처럼 미숙아나 조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유해한 결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피낭 열매는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 갑종의 재래시장에서 많이 팔리지만, 입안을 붉게 하고 장기간 사용 시 이빨을 검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젊은 층의 사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피낭 열매 씹기는 다소 비위생적으로 보이며 야만적으로 보일지라도 인도네시아와 인근 국가의 오랜 문화이며 전통입니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정서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려 했던 깊은 뜻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243회 문화탐방기>



인도네시아, 과거와 미래가 함께 오는 곳

임이랑 (한*인니문화연구원 인턴,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3 학년)

자 카르타에서 보내는 나의 인턴 생활 두 달째. 무더운 나날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속되던 중 아침 소나기가 한줄기 시원하게 지나간 날이었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 짧은 인턴 생활을 하던 중 맞이하는 첫 문화탐방의 날. 나는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될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며 소나기를 맞는 것처럼 가슴이 살짝 설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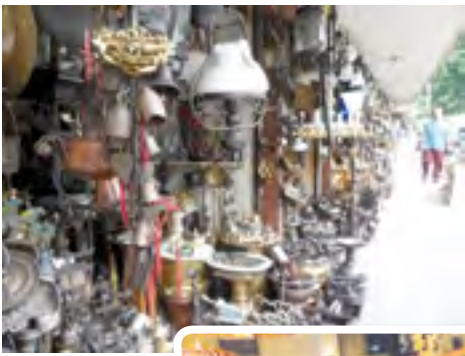
나의 첫 문화 탐방 주제는 ‘느끼는 만큼 나는 행복하다.’이다. 오색 빗갈로 나들이라도 가는 낭차려입은 회원 분들과 룸메이트와 함께 탐방 길에 동행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탐방 장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 주제와 어우러지는 시 한편을 낭송하는 나의 목소리가 퍼져 울린다. 시와 함께 시작하는 탐방이 신선하다.

이렇게 처음 도착한 장소는 바틱박물관 내의 체험장이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바틱선생님께서 손으로 그린 밑그림이 그려진 천을 내어주신다. 우리들은 다섯 명씩 동그랗게 모여앉아 툴리스(tulis) 체험을 한다. 인도네시아 직물의 대명사 바틱은 ‘점을 잇는다.’는 뜻으로 하나의 문양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하나 점을 그려나가는 고되고 한없이 느린 작업이다. 뜨거운 파라핀을 밑그림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간다. 뜨거운 파라핀을 닦아내는, 선을 따라 점을 잇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운다. 인내를 배운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며 우리는 생각하는 철학자가 된다. 이렇게 파라핀의 선들을 완성시킨 후에는 직접 메라, 응우(보라), 비루, 쪼끄랏 색으로 손수건을 염색하여 준다. 한 색 한 색 입히며 삶는 과정을 거치기까지 또 한 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낮

선 바틱 체험을 통해 문화는 습득이 아니라 체득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체험관 앞에 있는 바틱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체험 전에 보았다라면 그저 평범한 천으로 다가왔을 작품들이 완전히 새롭고 경이롭게 다가온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다. 다시 한 번 알수록 더 신비로운 인도네시아의 매력에 빠져든다. 바틱의 유래에 관해서는 3가지 속설이 있다. 인도로부터 바틱이 들어 왔다는 문화전파(Diffusion)의 관점이다. 그 이유는 인도의 발달된 직물기술과 함께 인도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른 유래는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적 요소가 현지에 맞게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보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관점이다. 또 다른 유래는 바틱에 관련된 기술의 뿌리가 인도네시아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발달되었다고 보는 현지전통(The local tradition)의 관점이다. 한편 바틱 전통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인도네시아 지역마다 특징적인 문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주변 자연의 모습을 닮아있고 역사적·시대적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생활 문화이자 예술인 바틱을 다시 아는 흥미로운 박물관 탐방이었다.

장소를 옮겨 이동한 곳은 일제 강점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활약한 한국인 영화감독 허영의 묘지였다. 허영은 인도네시아 영화계의 거장으로 현재 활동하는 많은 영화감독들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조선에서 영화를 만들기



도 하였고, 일본 문화성의 직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왔다. 독립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인도네시아 독립을 기념하는 영화도 수편 만들어내었다. 시대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뿌리내릴 수 없었던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식어가는 심장에 영화로서 붉고 화사한 꽃을 피우려 했지만 젊은 나이에 외로이 요절하게 된다. 허영, 그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로지 영화만을 생각했고, 영화만을 사랑했던 그의 고단했던 삶 앞에 인도네시아의 문화대로 Bunga Tabur(붕아 따부르)을 가득 뿌려드렸다. 처자식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망명 아닌 망명의 삶을 살아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 그들은 이국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오전 일정을 마치고 DESA BUMBU에서 인도네시아 식 식사를 마친 탐방 회원들은 잘란 수라바야(JL.SURABAYA) 골동품 거리를 갔다. 이곳에서는 섬나라의 특징상 수많은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 교류가 이루어졌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가 깃들여진 골동품들이 거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은 RUMAH OBAMA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사람보다도 피부색이 더 까만 오바마는 양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 시절 4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 시절 주인집의 작은 별채에서 살았던 오바마는, 처음 이 작은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마당에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비의 꿈을 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긴 오바마는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인물이 되었다. 편견과 외로움은 그의 어떤 꿈도 꺾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삶 안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깊은 마음을 품게 한 약이 되었으리라. 탐방 막바지에 찾은 수카르노-하타 동상.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선언을 했던 수카르노의 자택이었다. 우리와 이틀이 차이가 나는 8월 17일에 인도네시아 또한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수카르노는 바로 이 자택에서 인도네시아가 독립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선언서를 낭독한 것이다. 이곳에 서면 국기가 멋지게 휘날리며 국기가 드높여질 때에 웬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같은 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건축물에는 광복을 뜻하는 45와 8, 17 숫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17개의 기둥을 세웠고 가장 높은 기둥의 높이는 8미터에 이른다.

마지막 장소는 묘비박물관이다. 가톨릭 교인들의 무덤으로 슬피 우는 여인상을 보며 삶과 죽음의 거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저절로 경건하고 숭고한 마음이 들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가 함께 온다. 오늘 탐방은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인니문화 그 낯설음 속에서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복해졌다.

짧지만 깊은 감동이었던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의 인턴 생활을 기억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든 만남이 한 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함께 오는 귀한 순간순간들로 기억되리란 걸 탐방을 마칠 무렵에 비로소 알았다.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부동산법(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8. 토지에 관한 1960년 법률 제5호(토지 기본법)

8.1.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권리

8.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용도,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8.1.2.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8.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권리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에서 토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rtanahan)는 지방자

치 단체 산하 기관이 아니고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며, 중앙정부에 있는 토지권(Badan Pertanahan Nasional/BPN)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8.2. 토지에 대한 원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 인정

산림 개발, 농장, 광산 개발,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리 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다. 토지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 상의 주민 공동소유권(Hak Ulayat)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업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증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8.3. 토지의 사회적 기능 강조 및 보유면적 제한

8.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8.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000 m²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000 m² 이상 보유가 불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자카르타 주지사의 특별 허가를 얻어야 5,000 m²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8.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8.4.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토지 소유권 보유 허용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 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8.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 제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임시 거주허가서/KITAS 이상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단체,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국제기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8.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 다양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차권, 개간권, 임산물 채취권 및 기타 권리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한국이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8.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권 및 조어권

8.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

9. 소유권(Hak Milik)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시에는 취득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이중 국적 보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다. 이중 국적 보유자는 이중 국적 보유 시점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4.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5.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5.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5.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5.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5.4. 상술한 “9.2.” 항 혹은 “9.3” 항에 해당 되는 경우

9.5.5.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 경작권(Hak Guna Usaha)

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어업 및 목축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경작권을 허용한다.

10.1.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경작권 보유를 허용한다.

10.2. 경작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오) ha 이상이어야 하며, 25(이십오) ha 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경작권 면적은 최대 25(이십오) ha까지이며, 법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면적은 중앙 토지원장이 정한다.

10.3. 경작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삼십오)년, 연장 최장 25(이십오)년, 갱신 최장 35(삼십오)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삼십오)년과 연장 최장 25(이십오)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구십오년)년을 줄 수 있다.

10.4. 경작권은 자유롭게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으며 담보 능력이 있으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10.5. 경작권 보유자의 의무

10.5.1. 국가에 법정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10.5.2. 경작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경작권 부여 목적에 맞는 농업, Plantation, 수산업 혹은 목축업을 해야 한다.

10.5.3.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경작권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10.5.4. 경작권이 부여된 토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환경 시설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10.5.6. 토지 비옥을 유지하고 자연 지원 파손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0.5.7. 경작권 사용에 대하여 매년 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5.8. 경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10.5.9. 경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경작권 등기 권리 증서를 발급기관인 토지원에 반납해야 한다.

10.6. 경작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10.6.1. 경작권의 시효가 경과가 한 경우

10.6.2. 법정 의무 사항 불이행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유권 기관에서 강제로 취소한 경우

10.6.3. 경작권 시한 만기 전에 경작권 보유자가 자진 반납한 경우

10.6.4.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10.6.5. 경작권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 방치한 경우

10.6.6.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6.7. 경작권 보유자가 법정 보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경작권은 대규모 토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대규모 토지를 최초(35년), 연장(25년) 및 갱신(35년)하여 토탈 95년간 확보가 가능하다.

11. 건축권(Hak Guna Bangunan)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권이라고 한다. 공장, 창고, 사무실 빌딩, 주택,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이 건축권이다.

11.1. 건축권 보유 가능자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 보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지사,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외국인, 인도네시아 사업자 일지라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Joint Operation 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법인자격

을 획득한 주식회사, 재단 혹은 조합에게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100%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투자회사에게도 법인자격을 획득하면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거나 법인자격을 상실하면 1(일)년 이내에 건축권을 유자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일)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건축권이 실효하며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재단법 발효 이후 정관을 새 재단법에 따라 개정하지 않은 재단 및 새 주식회사법 발효 이후 새 주식회사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법인 자격을 상실한 재단 혹은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으며 건축권의 보유자인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해버려서 건축권 자체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매매는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혹은 소유권 토지에 건축권을 줄 수 있다.

소유권 토지에 대한 건축권 부여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에 의해 토지 소유자와 건축권 신청자 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중앙 토지원장이 부여하며 건축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1.3. 건축권 유효 기간

건축권은 최초 최장 30(삼십)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20(이십)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30(삼십)년 갱신이 가능하다. 투자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 토탈 80(팔십)년을 줄 수 있다.

11.4.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조건

11.4.1.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을 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건축권 보유자의 법적 신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혹은 법인이어야 하고 대상 토지가 국토 이용 계획서 상으로 건축권 부여에 문제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11.4.2.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늦어도 건축권 만기 2(이)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5.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

11.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는 건축권 취득세는 5%이며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1.5.2. 토지 건축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결정서에 있는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환경 훼손이 없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11.5.3. 건축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원본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11.6. 건축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1.7. 건축권 토지를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1.8. 건축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1.9. 건축권 실효

건축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권 만기일이 되면 건축권은 실효한다. 따라서 건축권 토지(부동산)를 매입 시에는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건축권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권은 실효하며, 건축권 보유자가 만기일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건축권이 실효하며, 공익을 위해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실효하며, 건축권 보유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고 1(일)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효하며, 건축권 보유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한지 1(일)년 이내에 건축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권은 실효한다.

(다음 호에 계속)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자주 겪으셨을 텐데요 다음은 길이 막혀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Aku terjebak di tengah jalan karena macet.
막혀서 길 한가운데 매어(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있어.

Aku terjebak di jalan karena mobilku mogok.
차가 멈춰서 길에 매어 있어.

일반적으로 **Mogok**은 파업하거나 농성을 할 때 멈추다, 중지하다. 라는 의미의 투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탈것이 기체 결함으로 길거리에 설 경우

Mobilku mogok di jalan.
차가 길에서 멈춰 버렸어.
라고 표현 할 때 사용 합니다.

Tip) 교통 체증 외 표현

Aku terjebak di tengah
Aku bingung harus bagaimana.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erjebak di tengah
직역 하면
중간에 끼어서(뭇. 함정, 울가미에 걸리다)
입장이 난처 함을 나타낼 때 사용 합니다.

Kau tahu keuanganku sedang menipis.
너도 알다시피 자금 사정이 안 좋잖아.

어근은 **Tipis**로 얇은, 가는, 가느다람의 의 뜻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때때로 빈약한, 불충분한, 뭔가 부족함을 나타 낼 때 사용 됩니다.

우리말에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주머니가 얇아졌다. 라는 표현으로 재정 상태의

불안정함을 나타내듯 *keuanganku sedang menipis* (자금 사정이 안 좋다(얇아 졌다))

또는 *kantongku sedang tipis*. (주머니가 얇다/ 돈이 없다)로 표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작은 사건이 벌어져도 sns를 통해 쉽게 남들에게 소문이 퍼기지도 합니다.

상대방이 부탁한 비밀... 얼마나 지켜주시나요..

무언가 마음에 담아두고 발설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을 숨기다라고 할 때 Sembunyi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embunyi와 Pendam은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Pendam은 숨기다. 감추다 외에도 파 묻다 라는 뜻을 가진 Pendam은 뭔가를 깊숙이 숨기다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라는 외적 표현은 Sembunyi와 같으나.

주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생각, 문제 따위를 숨길 때. 어떠한 비밀 따위를 숨길 때 사용 되며, Sembunyi (숨기다/ 감추다)는 감정을 숨기다라는 표현에도 사용되지만 물건이나, 계획등을 숨길 때도 사용됩니다.

예) *Jangan pendam masalahmu sendiri, cobalah tukar pikiran dengan Umi.*

형 혼자 숨기지(마음에 담아두다) 말고 형수한테 라도 털어.

Dia janji akan memendam rahasia itu seumur hidupnya.

그는 평생 그 비밀을 묻고 가기로 약속 했다.

Dia memendam masalah kemarin agar keadaan tak kacau.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어제 그 문제를 묻어 두기로 했다.

Dia menyembunyikan rencananya pulang ke kampung kepada teman-temannya.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친구들에게 숨겼다.

Dia menyembunyikan barangku yang sudah usang di gudang.

그는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나의 낡은 짐을 숨겼다.



<http://www.streetdirectory.co.id/indonesia/jakarta>

에 접속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Nama Rumah Sakit	Alamat	Telp. (021)
JAKARTA BARAT		
RS Royal Taruma	Jl. Daan Mogot No.34 Grogol	56958338
RS. Pelni Petamburan	Jl. K. S. Tubun No. 92 - 94	5306901
RSIA. Hermina Daan Mogot	Jl. Kintamani Raya No. 2 Perumahan Daan Mogot Baru	5408989
RS. Medika Permata Hijau	Jl. Raya Kebayoran Lama No. 64	5305288
RS. Jantung Harapan Kita	Jl.Lenjen S.Parman Kav.87 Slipi	5684170
RS Siloam Hospital Kebon Jeruk (재활센터 한인상담 및 치료사 민경철)	Jl.Raya Perjuangan Kav.8 Kebon Jeruk	5300888 53695666 081282367400
JAKARTA PUSAT		
RS. Husada	Jl. Raya Mangga Besar No. 137 - 139	6260108
RS. Saint Carolus	Jl. Salemba Raya No. 41	3904441
RSCM (RS. Cipto Mangun Kusumo)	Jl.Diponegoro No.71	3921155
MRCCC Siloam Hospitals Semanggi	Jl.Garnisun Dalam No.2-3 Semanggi	29962888
JAKARTA SELATAN		
RS. Medistra	Jl. Jen. Gatot Soebroto Kav. 49	5210200
RS. Pusat Pertamina	Jl. Kyai Maja No. 43, Kebayoran Baru	7219204
RS. Siaga Raya (Ortopedi)	Pejaten Barat Kav. 4 - 8, Pasar Minggu	7972750
RS. Pondok Indah	Jl. Metro Duta Kav. UE Pondok Indah	7657525
RS. MMC	Jl. H. R. Rasuna Said, Kav. C-21	5203435
RS Fatmawati	Jl. Cilandak Fatmawati	7501524
JAKARTA TIMUR		
RSIA. Hermina Jatinegara	Jl. Jatinegara Barat No. 126	8191223
RS. Omni Medical Center	Jl. Pulomas Barat VI No. 20	4723332
RS. F. K. UKI Cawang	Jl. May. Jen Soetoyo Cawang	8092317
RS. Mediros	Jl. Perintis Kemerdekaan Kav. 149	4750042
RS. Mitra Internasional Jatinegara	Jl. Raya Jatinegara Timur No. 87	2800666
JAKARTA UTARA		
RS. Pluit	Jl. Raya Pluit Selatan No. 2	6685006
RS. Mitra Keluarga Kelapa Gading	Jl. Bukit Gading Raya Kav. 2, Kelapa Gading Permai	45852700
RS. SILOAM (Luar Jakarta)		
RS Siloam di Tangerang	Jl.Siloam no.6 Lippo Karawaci Tangerang	5460055
RS Siloam di Cikarang	Jl.MH Thamrin Kav.105 Lippo Cikarang	89901088

POLDA METRO JAYA (Emergency) 지역경찰청.....112
 PEMADAM KEBAKARAN 소방서113
 AMBULANCE (CALL CENTER).....118
 INFORMASI TELEPON 전화번호안내.....108



한국병원 리스트

JAKARTA SELATAN

Clinic M (클리닉 엠)
Beauty & Slimming
Jl. Darmawangsa Jakarta Selatan
021-725-7253

관준 한의원
Jl. Brawijaya Jakarta Selatan
021-722-7745

뉴 월드 메디칼 (내과)
Jl. Senopati Jakarta Selatan
021-7279-3809

미 프란트 치과
(MI PLANT DENTAL CLINICS)
Jl. Wijaya Jakarta Selatan
021-9828-5488
0812-8816-0129

백병원
Gandaria Jakarta Selatan
021-2903-6447

서울 메디칼 크리닉
Jl. Tendean Jakarta Selatan
021-799-1333

서울 치과
Jl. Tendean Jakarta Selatan
021-799-6169

신농씨 한방병원
Jl. Darmawangsa Jakarta Selatan
021-7278-0563

실로암 한의원
Jl. Wijaya Jakarta Selatan
021-720-1779

아름다운 병원(소아과 /알러지)
Jl. Wolter Mongonsidi Jakarta Selatan
021-720-7628

1. 클리닉 마타하리 / 2. 한국 치과
(Clinic Matahari)

Jl. Wijaya Jakarta Selatan
1. 021-739-5666
2. 021-2923-9615
0856-9473-7777

향림당 한의원
Jl. Senayan Jakarta Selatan
021-720-7727

JAKARTA UTARA

아리랑 치과
(Arirang Dental Clinic)
Sunter Jakarta Utara
021-6583-2733
0812-8181-4225

JAKARTA PUSAT

우리들 병원
Citywalk Apt. Jakarta Pusat
021-2902-2828
0812-8236-7400

JAKARTA BARAT

재활센터 : 민경철
우리들 병원 2번째 Branch (Siloam Hospital
Kebon Jeruk)
Kebon Jeruk Jakarta Barat
0812-8236-7400

TANGERANG

Sun Future (침뜸 전문 클리닉)
ITC Tangerang
021-538-2185
0812-8818-0222

위조지폐 주의

아래 위조 화폐 관련 사건들은 최근 주재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환전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환전상이 아닌 사람이 시중 환율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환전을 권유하거나 환전을 도와줄 경우 커미션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할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2014년 총선(4.9)을 앞두고 대량의 위조지폐가 계속 발견되는 것이 금번 선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1. 북한 화폐(국제적으로 통용 및 환전 불가)

- 사기 수법 : 각국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동포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
- 최근 사례 : 인도네시아 미상조직들이 아국인 사업가 등에게 다량의 북한 화폐구권(5천원권)을 보여주며 환전이 가능하다고 기망
- 유의 사항 :
 - 북한의 화폐는 북한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 또한,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대사관(+62-21-2967-2580),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0404)로 연락하세요.

2. 인도네시아 루피아 위조지폐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국립경찰은 2.02(목) 2008~2013년간 경찰이 압수하여 보관중인 총 135,110매(총 97억 1,453만 루피아)의 루피아 위조지폐를 파기하였음.
- 서부자바 반둥시 경찰은 2.24(월) 위조지폐범 TYD(43세)로부터 11억 루피아(한화 1억원 상당) 규모의 위조 지폐를 압수, 경찰은 이미 약 3천만 루피아의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조사중

3. 싱가포르달러 위조지폐

- 술라웨시 경찰은 2014.2월 위조 싱가포르달러 6,483,465불(약 600억 루피아 상당)을 소지한 혐의로 남성 1명(마나도) 및 여성 1명(발리 자바)을 체포함

2014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재외동포재단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1997년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내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향후 재외동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사업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이 한자리 모여 소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십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는 「2014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에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24~4.4 / 거주국 공관별 마감일자 반드시 확인

나. 제출자료(①~④ 필수제출, ⑤,⑥ 선택제출)

- ①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www.korean.net 공지사항 내 동 연수공고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출력 → 공관 제출)
 - ② 자기소개서(한글·영어 중 택일) ※ 현지 출생여부, 거주기간 명시
 - ③ 여권사본 1부
 - ④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⑤ 각종분야 특기자·수상자 입증서류(사본)
 - ⑥ 추천서(학교장, 카운슬러)
- ※ 제출서류는워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것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할 것(공지가 이메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자주 사용하는 메일(naver, hotmail, gmail 등)을 기재)
비상연락처 및 한국 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접수처 : 현지 주재 재외공관

* 문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전화 : 62-21-2967-2580, 팩스 : 62-21-2967-2581

- email : koremb_in@mofa.go.kr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김주동 대리

- 전화 : 82-2-3415-0175, 팩스 : 82-2-3415-0118

- email : gkyn@okf.or.kr, 관련 웹사이트 : www.korean.net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더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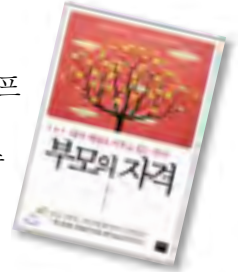


무라카미 하루키 저/권남희 역/비채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모음집으로, 1982년 봄부터 1986년 2월 까지, 격주간지 <스포츠 그래픽 넘버>에 연재한 글들을 한데 엮은 책이다. 81편의 '스크랩' 에피소드, 개장을 앞두고 있던 '도쿄 디즈니랜드 방문기'와 1984년 LA 올림픽 시즌에 쓴 '올림픽과 관계없는 올림픽 일기'가 차례로 이어진다. 특히, 둘째 장에는 도쿄 디즈니랜드 방문에 동행한 안자이 미즈마루 씨의 일러스트를 함께 수록해 오랜 콤비 '무라카미 하루키 x 안자이 미즈마루'가 빚어내는 글과 그림의 하모니도 맞볼 수 있다. 1980년대는 마이클 잭슨이 전세계 뮤직차트를 석권하고, 파랑 펍시와 빨강 코카콜라가 열띤 경쟁을 펼치고, 로키와 코만도가 테스트스테론을 마구 뽑아내던, '로망' 가득한 시절이다. 하루키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발표한 삼십대의 청년작가였다.

부모의 자격

최효찬, 이미미 공저/와이즈베리



SBS 스페셜 <부모 vs 학부모> 프로그램에서 '학습노동 감시자'로 전락한 우리나라 부모의 모습과 1년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업을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끔찍한 현실이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부모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욕망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이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서로 경쟁하는 입시 교육과 아이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방황의 시간을 앞둔 부모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왜 부모와 아이는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이 책은 교육 자본가들이 부추기는 '과잉교육'으로 명들여 상처투성이가 된 요즘 부모와 아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철학하는 십대가 세상을 바꾼다



데이비드 A. 화이트 저/김효정 역/카시오페아

미국의 명문학교 노스웨스턴 영재학교나 8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각의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철학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노스웨스턴 영재학교와 시카고교육청의 철학 교과서이다. 단순히 철학자의 이름과 사상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갖는 습관을 기르고 철학자처럼 똑똑하게 생각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짧은 철학자의 경구를 이용하여 십대가 가장 관심을 두는 일상적인 주제부터 시작한 질문은 윤리학과 인식론 형이상학을 거쳐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논리학까지 다가가간다. 질문과 그에 얽힌 철학자의 생각을 읽고 퀴즈를 풀다 보면 어느새 철학의 개념과 역사를 한 권에 끝내게 된다.

욕망하는 지도

제리 브로턴 저/이창신 역/김기봉해제 | 알에이치코리아(RHK)



이제 인류는 가상공간에 지도를 만드는 시대에 이르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 지도가 때문에 오히려 인류의 미래가 도리어 암울할 수도 있 암울할 수도 있다. 거대 기업이 지도와 그에 관련한 엄청난 정보를 독점하게 되어, 지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정치적 의도로 조종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 책은 역사학자 제리 브로턴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지도 12개를 중심으로 지도에 숨겨진 당대 제작자와 사용자의 욕망을 파헤치며 인류의 세계관을 풀어낸 역사서다. 과학, 교류, 신앙, 제국, 발견, 경계, 관용, 돈, 국가, 지정학, 평등, 정보 등 12개의 욕망 코드를 통해 각각의 지도가 제작 당시의 사회적 욕망이 반영된 시대의 거울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

1cm 일센티 첫 번째 이야기

김은주 저/김재연 그림 | 허밍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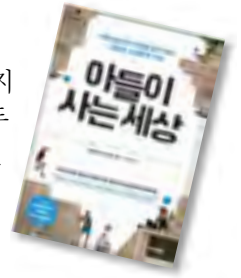


고정관념을 1cm 바꿔보고, 남녀 간에 존재하는 마음의 거리를 1cm 좁히며, 사람의 내면과 존재의 의미를 1cm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일상에 1cm만큼의 여유를 갖도록 권하면서, 생각의 키가 1cm쯤 더 자라도록 독려한다. 굴지의 광고 대행사 TBWA KOREA에 몸담고 있는 카피라이터 김은주가 특유의 발상과 관찰력을 기발한 글로 풀어내고, 제일기획 소속 아트디렉터 김재연이 재기 발랄하고 인상적인 일러스트로 그 힘을 더했다. 2013년 여름 출간된 『1cm (일 센티 플러스)』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톡톡 튀는 재치와 위트가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이 사는 세상

로잘린드 와이즈먼 저/이주혜 역 | 중앙m&b

이제는 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20년 간 청소년 전문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물론 본인 역시 십대 두 아들을 둔 엄마로서 겪은 고충이 스며들어 있다. 소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을 아는가? 소년들의 사회에는 그들조차 인정하길 꺼리는 불문율과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 세대가 십대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런 고달픈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아들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세계에는 그들조차 인정하길 꺼려하는 불문율과 계급이 존재한다. 세상이 주입한 남자다움의 가치를 가장 많이 갖춘 아이가 1인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하가 된다. 저자는 묻는다.

노예 12년 Movie Tie-in

솔로몬 노섭 저 /유수아 역 | 펭귄클래식코리아

노예해방 전쟁의 도화선



1840년대, 노예 제도가 횡행하던 미국의 남부를 배경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불법 납치되어 12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솔로몬 노섭의 실화다. 1808년 뉴욕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세 아이를 둔 가장이자 성실한 남편이요, 바이올린 연주자로 일하는 자유인이었다. 그러다 1841년, 일거리로 소개해 주겠다는 두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 길을 떠났다가 납치당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제임스 버치라는 악명 높은 노예 상인에게 잡혀 있던 솔로몬은 배에 태워져 떠나면 남부의 뉴올리언스 주로 팔려간다. 다행히 처음에는 좋은 주인을 만났지만, 존 티비츨라는 악인에게 넘겨지면서 끔찍한 고난이 시작된다.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저 | 창비

소외된 10대들에게 전하는 인사



열네 살 소녀 천지가 어느 날 자신이 짠 털실에 목을 매어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언니 만지는 동생이 남긴 흔적을 좇으며 퍼즐을 맞추어가는데, 차츰 가슴 아픈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천지와 가까웠던 친구 화연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천지를 이용했고, 천지가 사랑했던 가족들은 이러한 천지의 고민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지가 자신이 미워했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마지막 남긴 편지를 발견하고 만지는 화연을 감싸 안는다. 작품은 크게 '산 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로 나뉜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2014.3.3 현재)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1	이지현	2014	6,000,000	
2	김주철	2014	3,000,000	
3	이종후	2014	1,000,000	
4	백승래	2014		200
5	손용	2014	300,000	
6	임성용	2014	300,000	
7	이승민	2014	300,000	
8	김재민	2014	300,000	
9	신기엽	2014	300,000	
10	강희중	2014	300,000	
11	강덕재	2014	3,300,000	
12	김원모	2014	300,000	
13	권영동	2014	300,000	
14	김일태	2014	300,000	
15	이소왕	2014	300,000	
16	이완주	2014	300,000	
17	이효욱	2014	300,000	
18	정재호	2014	300,000	
19	최건호	2014	300,000	
20	최문중	2014	300,000	
21	홍석진	2014	300,000	
22	홍훈섭	2014	300,000	
23	김섭	2014	300,000	
24	김종주	2014	300,000	
25	오세윤	2014	300,000	
26	김현동	2014	300,000	
27	백승명	2014	300,000	
28	윤석환	2014	300,000	
29	이기열	2014	300,000	
30	이정호	2014	300,000	
31	최호영	2014	300,000	
32	황재규	2014	300,000	
33	한기환	2014	300,000	
34	배희윤	2014	300,000	
35	이봉규	2014	300,000	
36	이원만	2014	300,000	
37	박정호	2014	300,000	
38	양영연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39	배영태	2014	300,000	
40	최철우	2014	300,000	
41	김영수	2014	300,000	
42	이일하	2014	300,000	
43	이수진	2014	300,000	
44	장방식	2014	300,000	
45	조규철	2014	300,000	
46	최양기	2014	300,000	
47	엄종한	2014	300,000	
총 금액			Rp25,900,000	\$200

2014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USD
1	한인회 부회장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2	한인회 부회장	김희년	PT. E-TRADING	2014	5,000
3	한인회 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4	한인회 자문위원	송재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5	한인회 이사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6	한인회 이사	신만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7	한인회 이사	이소왕	L S W	2013	1,000
8	한인회 이사	임성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총 금액					\$16,000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수재의연금 모금 현황〉

수재의연금 기탁자

(2014.2.27 현재)

번호	기업 · 단체명	대표자	금액
			RP
1	KORINDO GROUP	승은호	100,000,000
2	KMK GROUP	송창근	100,000,000
3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KOGA)	배도운	50,000,000
4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차상만	50,000,000
5	PT. DAYUP INDONESIA	석웅치	30,000,000
6	PT. DOOSAN CIPTA BUSANA	배도운	20,000,000
7	PT. MITRA BUANA	신동수	20,000,000
8	PT. HANINDO EXPRESS UTAMA	신기업	10,000,000
9	PT. GAYA INDAH KHARISMA	김영욱	10,000,000
10	PT. STAR CAMTEX	김주철	10,000,000
11	PT. CIPTA ORION METAL	김준규	10,000,000
12	PT. BUSANA PRIMA GLOBAL	박재한	10,000,000
13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배응식	10,000,000
14	PT. ING INTERNATIONAL	엄정호	10,000,000
15	PT. SUNG BO JAYA	이진수	10,000,000
16	PT. VICTOR JAYA RAYA	이호덕	10,000,000
17	PT. BANK WOORI INDONESIA	최상학	10,000,000
18	PT. INWHA INDONESIA	황의상	10,000,000
19	PT. KIPCO CO.LTD	김영만	10,000,000
20	한인회 여성 회장	박미례	10,000,000
21	PAKUWON GROUP	이윤상	10,000,000
22	소망교회	김종성	10,000,000
23	기독교실업인자카르타지회	한상재	15,000,000
24	PT. SAMICK INDONESIA	권희정	10,000,000
25	재인도네시아모발협의회	김영울	10,000,000
26	족자카르타한인회	박병엽	10,000,000
27	동네사람들		5,000,000
28	NISSI GROUP	김재유	5,000,000
29	PT. INKO PRIMA UTAMA JAYA	장주현	1,000,000
30	PT. BIG STAR	최광수	10,000,000
31	PT. DONG JUNG INDONESIA	조규철	10,000,000
32	PT. ZIMMOAH MARINE TRANS	이지현	10,000,000
33	PT. ETRADING SECURITIES	김희년	10,000,000
34	PT. ZONE STAR INDONESIA		5,000,000
총 금액			Rp621,000,00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딤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플라빠가딩)	750 0739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참피온

환전
승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佳者 最高の 제도와 지명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담아 모셨습니다

佳者 Gahyo

(021)9127-2262
308D Ji.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	----------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JAKARTA BIZ DAILY
 Patra Jasa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www.doowang.com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물어옵니다.
 보려는 나라 세움이고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만문 만물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줄 것 다해 알아질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거-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stn.net.id, doowang1@gmail.com

Salon & Beauty Shop	272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뽀독인다)	315	1033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쁘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쁘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등)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쁘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빔)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쉴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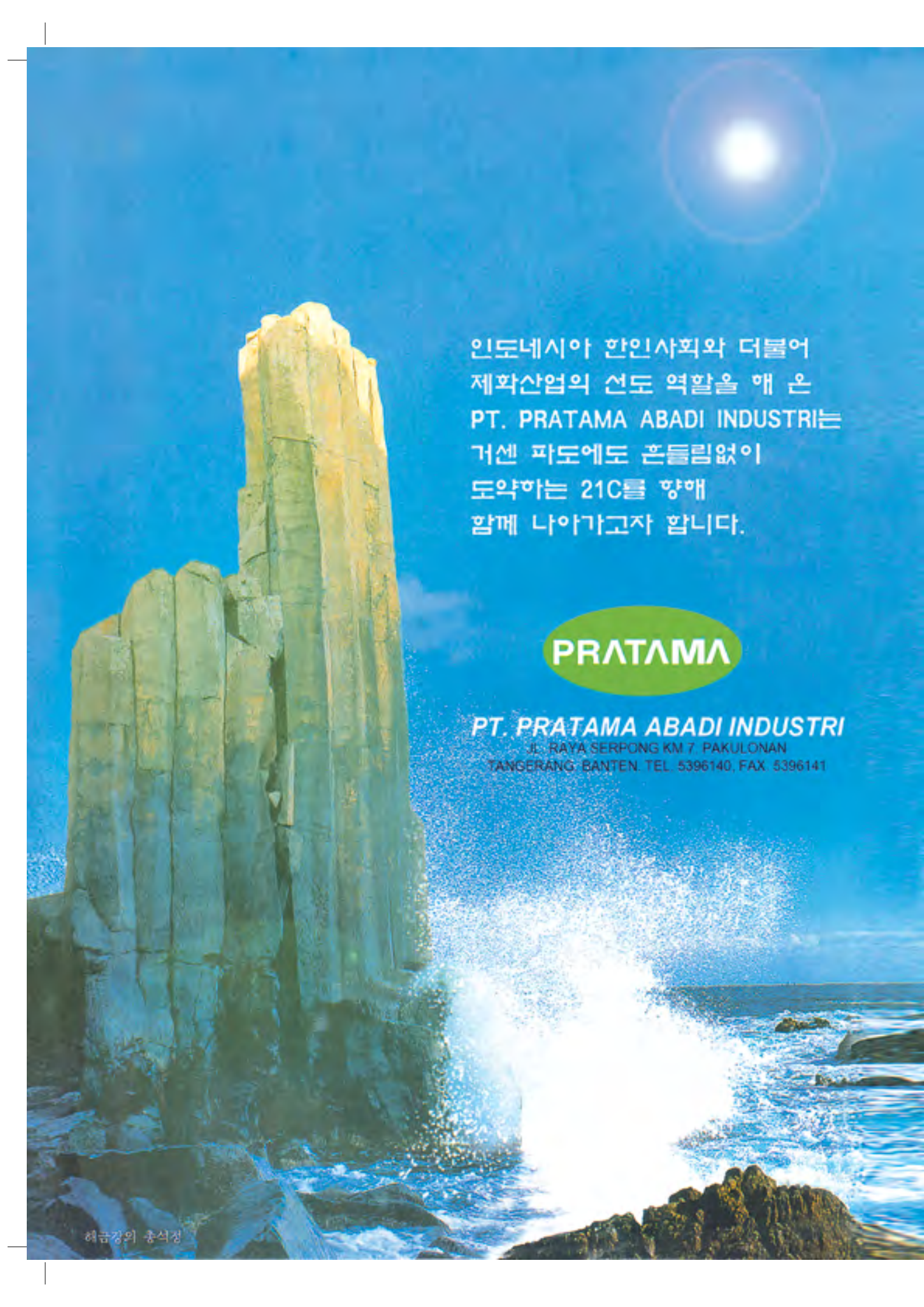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선도 역할을 해 온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도약하는 21C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JL. RAYA SERPONG KM 7. PAKULONAN
TANGERANG BANTEN. TEL. 5396140, FAX. 5396141

KORINDO Plants the Green

KORINDO
KORINDO GROUP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두 번 사랑함. KIDECO
우리의 열정과 투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한을 타사로 경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